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원수의 원인은 번뇌에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2일)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태고종 20세 종정 지허 스님 추대

7월 15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15년 만에 새 종정 모셔
"지계 겸비 선지식" 평가
종단 안정화 기대감 높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지허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前 종정 혜초 스님이 2004년부터 15년간 3번의 임기를 만료한 2019년 4월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던 종정이 새롭게 추대됐다는 점에서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태고종이 그동안 각종 분규 등으로 그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정신적 스승인 종정을 새롭게 추대하면서 종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재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7월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개최하고 지허 스님을 20세 종정으로 추대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원로의장 선출을 주요안건으로 한 원로회의였지만, 공석으로 1년간 지속된 종정 추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일 종정추대 안건을 상정하고 추대 절차를 진행했다.

태고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원로의장에 선출된 도광 스님은 당선 직후 종단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종정추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으며, 이에 동의한 원로회의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등 3원장이 참여하는 종정추대회의로 전환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추대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3원장은 "혜행이 원만하고 덕행이 수승한 금둔사 지허 스님을 20세 종정으로 추대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원로회의를 포함한 종정추대회의는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한데 이어 종법 절차에 따라 원로의장을 비롯한 3원장의 품청으로 지허 스님이 종정으로 최종 추대됐다.

지허 스님은 그동안 종단 특별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종사 법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7월 9일 고시(법계)위원회(위원장 재흥)는 지허 스님에 대한 대종사법계 추대 심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이날 종법 절차에 따라 원로회의에 승인을 요청했다. 원로회의가 회의에서 지허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수를 승인함에 따라 지허 스님은 종법상 종정 자격을 완벽히 갖추게 됐다.

태고종 20세 종정에 추대된 지허 스님은 지계를 겸비한 종단 내 손꼽히는 선지식으로 평가된다.

15세에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6년 선암사에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지에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경붕, 전강, 구산 스님 등 당대 제방의 큰 스님들로부터 불법을 배웠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 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에서 선과 다도를 익히면서 혼란기에 묵어버린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사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하기도 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또 폐사된 대승암을 복원하고 대웅전을 비롯한 선암사 당우 상당수를 해체·복원하는 등 위상 제고에 힘썼으며, 1979년 7월 금전산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선암사 주지에 이어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4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5대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제5대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이날 원로회의에서 다른 후보자 청봉 스님과 각 10표씩 동표를 받은 가운데, 지침에 따른 법랍순으로 원로의장에 선출됐다.



부처님 계율 수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1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삼귀의계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600명으로 제한해 열렸다. 사진은 연합회 스님들이 관정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관정의식에 사용된 관정수는 연합회 국장단 스님들이 수계법회를 위해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참배하고 감로수를 채수한 뒤 합수해 만들어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상월선원 만행결사 '태화산 求道行覺'

7월 27~31일 공주 태화산서 결사 예비순례 열려

매일 10시간 씩 31km 도보행
코로나 방지에 대중공사 취소
100여 명 참가해 2그룹 나눠
인도만행과 비슷한 상황 훈련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걸어서 수행하시고 전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공주 태화산에서 순례의 장을 엽니다. 상월선원 결사의 4대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결사의 새로운 순례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펼쳐진다.

상월선원 인도만행결사 도감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과 지객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재가대표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7월 14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인도만행결사의 예비 성격으로 열리는 공주 태화산 순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공개됐다.

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동안거가 추억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지속해서 찾아가야 한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순례를 해 가는데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나태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100차까지라도 몸과 정신이 된다면 계속해 나갈 각오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공주 태화산 순례는 첫날인 7월 27일 오후 6시 입재식에 이어 다음날인 28일 새벽 3시 30분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벽예불과 함께 해뜨기 전까지 휴식 없이 걸은 후 오전 6시 주먹밥으로 아침공양을 한다. 이후 점심공양 때까지 20여 km를 걷고 오후 4시경 총 31km의 순례를 마친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총 인원은 1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두 그룹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순례를 진행한다.

현재 신청한 이들 중에는 70대 스님들과 이재오 前 국회의원 등 고령자들과 경북대학교 2학년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의 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다양한 만큼 걷는 속도를 함께 맞추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 출신 참가자와 응급팀이 함께 동행한다.

지객 원명 스님은 "현재 비구 스님 40여명, 비구니 스님 10여명, 재가자 10명에 태화산 순례만 동참하는 인원 10명까지 많은 이들이 신청했다. 고령인 분들도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무탈하게 모두가 완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례 코스는 한국문화연수원을 출발해 유구리를 거쳐 동원리와 염정리, 호계리 등을 지나 마곡사를 통과해 돌아오는 경로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새벽예불 후 식사를 하지 않고 출발하여 오전 6시까지 총 8km를 걷는다. 해가 뜨기 전 최대한 많이 걷기 위해서다. 여기서 아침공양과 함께 휴식 후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3km를 걷는다. 점심공양 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9km 구간을 걷게 된다. 마곡사에 당도하기 전에는 인도만행시 겪게 될 영축산 등반과 비슷한 1.5km구간의 오르막 구간을 지나게 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야간 대중공사와 강의 등은 취소됐으며, 원할한 진행을 위해 연수원 시설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순례 진행을 위해 상월선원 대중 일부는 7월 10일 1차 답사에 이어 7월 18일 2차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태화산 순례는 인도만행결사의 예비순례 성격인 만큼 예비순례 참석자 만이 인도만행에 참석할 수 있다.

정충래 이사는 "직접 답사해보니 지방도와 농도 등으로 구성돼 쉽지 않은 길이다. 준비를 잘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완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인도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 대중들이 함께 정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힘든 길이지만 한국불교를 중흥한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화쟁’ 통해 ‘화합 국회’ 구현하겠다”

인터뷰 **이원욱** 제21대 국회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리=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출범했다. 정각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8 · 화성 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부터 정각회 간사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각회장으로 거론돼 왔다.

이 의원을 7월 10일 의원실에서 만나 정각회장 취임 소감과 운영 계획, 불교계 현안 문제, 향후 의정활동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Q. 제21대 국회 정각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소감과 소회를 밝힌다면.

A. 사실 신실한 불자라고 할 수 없는데 정각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동료 의원들이 맡겨준 소임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화쟁(和爭)’의 정신으로 불자 국회의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하다.

A. 나의 불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직자 시절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매료돼 전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다녔다.

어느 날 구례 화엄사 각황전을 답사하는 데 법당에 있는 보살에게 불상에 대해 물어보니 반대로 보살이 “처사님은 불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불교에 대한 일반 상식선에서 답을 했더니 보살은 “불교는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상과 보살상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관음보살상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의미하고 여기에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닮아가려는 노력이다.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보살의 설명에 불교에 대해 크게 알게 됐다.

Q. 법명은 무엇인가?

A. 20년 전 법명은 밝힐 수 없는 대덕 스님에게 받았다. ‘중달(中達)’이다.

Q. 제21대 국회 정각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A.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주문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일해라”이다. 정각회가 나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정각회 회원들과 사찰 순례를 다니면서 서로 간의 우호를 다지려고 한다. 우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갈등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해 화합 ·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의원님께서 정각회장에 내정되고 난 뒤 직접 적극적 인재 영입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 유치 전략과 영입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이번 국회 정각회 회원은 여권 25명, 야권 15명으로 총 40명이다.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인원이 입회했다. 특별한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의원 간 전화통화나 만남서 항상 “종교가 불교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면 “무교라면 불심(佛心)은 있는 것이다”라고 설득해 회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Q.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각회 불자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A. 국회가 논쟁하고 갈등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당이라는 조직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른 정당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논쟁하고 갈등하는 것이냐’ 이다. 국회는 ‘품격이 있는 논쟁’을 해야 한다. 인신공격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정당 간의 갈등 · 대립 필연적
現 국회 ‘품격있는 논쟁’ 필요
인신공격 등 소모성 정쟁 지양

국가적 과제엔 여야 구분 없어
화쟁으로 논쟁한다면 화합 가능

“사찰 중첩규제 해결 노력할 것”
불교 추경예산 철회 아쉬움 많아

국회 내에서 단기간의 갈등과 대립은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 사회 양극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서는 여야가 정쟁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어느 국회의원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최고 사상 중 하나가 ‘화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가 싸울 일은 많지 않다. 정각회 회원부터 친밀해지고, ‘화쟁’의 기치 아래서 공통의 국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 화합 국회의 길이 보일 것이다.

Q.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법령들이 생각보다 많다. 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은 중첩된 규제 법령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통사찰 규제 법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A. 모든 규제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착한 규제도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중첩규제들이다. 이로 인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중첩된 규제들은 없어져야 한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나쁜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일명 ‘좋은 어른법’ 1, 2호를 발의했다. 1호는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2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모두 아동 관련 법안들인데 주요 골자와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위해 간 적이 있다. 그 때 보호시설 아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의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된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500만원으로 현재 사회에서 자립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만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2호 법안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학대 치사나 학대중상해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무기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1963년 충남 보령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당 당직자로 활동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제19대 선거에서는 같은 지역구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 21대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독도수호국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부본부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Q. 코로나19 사태에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불교계는 기민한 감염 예방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KBS의 ‘불교 추경 예산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보도로 예결소위에서 관련 예산 180억원을 모두 철회했다고 한다. 실제 코로나 19 사태로 전통사찰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예산 취소는 아쉬운 점이 많다.

A. 모든 국가의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유럽은 성당과 교회, 중동 지역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상이 발전해 왔다. 한국에서는 불교의 사찰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발전이 이뤄졌다. 그래서 사찰을 단순히 종교시설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은 타당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초기부터 가장 솔선해서 대응했던 종교가 불교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한달 뒤로 연기하고, 봉축행사인 연등회까지 취소하지 않았는가. 전통사찰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 시책을 더 열심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다. 추경예산도 문화유산 보존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았을 것이다. 많이 아쉽다.

Q. 평소 수행이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A. 지역구에 있는 사찰인 용주사와 만의사, 용화사에 자주 다닌다. 의정활동으로 인해 서울에 머물 때에는 개인적으로 봉은사와 진관사를 찾아 참배한다. 지난 20대 국회 정각회에서 활동할 때에는 월례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성실성을 회원들에게 인정받아 정각회장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경구가 있다면.

A. 〈숫타니파타〉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매순간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A.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돼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 악화로 더 힘들어 지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더 힘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관련 의제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위한 의원 협의체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상생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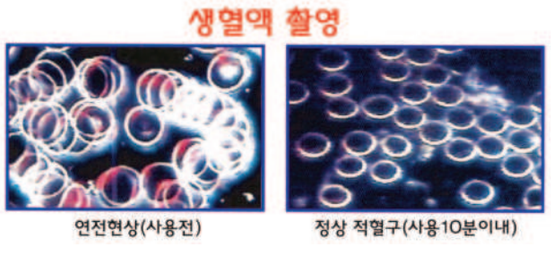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통증이 그냥 사라지며
▶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 저녁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 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하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치약만 사용했을 뿐인데 비누는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 정상화에 의한 건강이 유지되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

종단협, 회원 종단 자격·의무 강화된다

종단협, 14일 총회·이사회서 정관 개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제2회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회원 52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임원 등에 대한 정관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협의회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관의 전반적 검토를 결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전반에 걸쳐 개정 사항을 점검해왔다.

이날 논의된 정관은 △제2장 회원 △제3장 △제5장 이사회 △정관시행세칙 등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됐다.

회원 부문 정관에서는 회원 종단 대표자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 간 회원 자격을 중지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정관시행세칙의 설립일이 3년 이상인 종단과 법인단체가 가입할 수 있었던 회원 자격 조항을 '창종(설립일)만 10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협의회의 임원 구성도 변경됐다. 상임이사는 20인에서 25인으로, 이사는 40인에서 45인으로 상향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조항은 분리돼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이 아닌 '추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협의회의 사무총장은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받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출해 회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했으며, 감사는 회원종단에서 순차별로 추천받아 이사회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회원 종단 대표자 실형 확정 시 당사자해임, 3~6개월 회원정지
'창종 만10년 이상' 자격 명시돼
前 원장 배임 실형 법화종 강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경 △불기 2564(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 진행 △법화종 사태 논의 △종단협 의전순서 조정 등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사회는 앞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종단인 법화종을 이사로 강등하기로 결의했다. 법화종은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주지 재임명 과정에서 배임한 것이 문제가 돼 올해 1월 최종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의전 서열도 새로 정리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 종단으로 강등된 법화종과 수년간 협의회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임이사 종단 일승종을 지난해 신규 가입한 불이종의 바로 위인 28, 29위로 의전 서열을 조정했다.

신규 상임이사 종단으로는 (재)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이 참여하게 됐으며, 의전 서열도 이에 맞게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국내 사업 연기와 취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억 6000만원, 특별회계 1억 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불교協 운영 체계 확립

이와 함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정관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 확립에 나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정관 개정은 관례로 이뤄지고 있는 협의회 운영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정관 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 자격은 기존 한국불교 기성종단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정사, 재가자'로 변경됐다. 부회장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임원 구성에 준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임원들의 임기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개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 임기는 4년으로 명문화됐다.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총림 당연직 임회위원 '원로의원' 변경 검토

15일 총림제도개선특위서 논의

조계종 총림의 임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자격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총림특위)는 7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 개선을 위한 조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4조 임회의 구성 가운데 당연직 임회 위원에 대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총림법은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회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 수가 증가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위원스님도 "현 추세를 볼 때 법계 대종사 스님이 가까운 시일 내 10명 이상으로 증가할 교구도 있다"며 "상황을 감안해 일부 제한을 두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 스님들은 이에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전·현직 원로의원인 재적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총림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사찰 세금 과다… 부담금 감면 필요

전통사찰들의 입지는 대부분 산이나 임야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찰 발전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개발 부담금 등이 발생해 왔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각종 규제에 여러 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법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이다. 전통사찰이 건물 신축 등 불사를 진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다. 조계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하거나 감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과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산지에 자리한 전통사찰들
불사 위해선 부담금 발생해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종교집회장에 대한 개발행위부담금 부과 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지와 임야에 자리한 사찰이 이미 여러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계종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조계종의 요구는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다. 기실 2009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로 법률명이 변경된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전통사찰의 실질적 보존 및 지원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전사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전통사찰 무허가·승인 건물 양성화 △재난 발생시 복구 지원 △전통사찰보존지 내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 필요"

본사주지協 14일 선운사서 회의
총무원, 사찰 전기료 현황 조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 7월 14일 선운사 불교회관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총무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보고 △사찰 분담금 10% 감면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교구본사 및 주요 전통사찰 전기요금 사용현황조사의 건, 사찰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보고 △사찰등급조정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총무원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 전통사찰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정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본사 및 전통사찰 전기요금 납부 현황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7월 14일 67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장 정묵 스님(수덕사 주지)은 "수덕사에서 난방용 경유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했는데 연간 약 4억 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그동안 문화재 방재용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문화용 전기요금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과 관련해 명사 자격과 추천 절차와 관련한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차별금지법 법제화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종평위, 발의 환영 입장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7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입장문에서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혐오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활 속에서의 주인공 관법 수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향상
▶포교현장에서 실질적 활용 방안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만해대상 '포티락 · 엄홍길 · 김주영 · 신달자'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시상식

코로나19 사태 방역 최전선 대구 동산병원도 실천대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만해대상 실천대상에 불자 산악인 엄홍길 씨와 대구동산병원이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4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올해 실천대상은 산악인 엄홍길 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이 받게 됐으며,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하게 된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 안느 스퇴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엄홍길 씨는 2000년 히말라야 8,000m이상 14개 봉우리를 모두 밟은 불자 산악인으로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사랑을 쏟으며 2008년 재단법인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네팔 히말라야 산간 또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초입인 쿰부 남체(3,440m)에 엄홍길휴먼재단병원을 2017년 5월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의 산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을 펼쳐 2020년 6월 현재 3억7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와 최전방에서 싸워온 코로나 방역의 최후 보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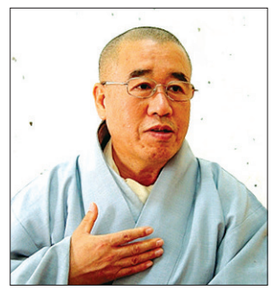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포티락 스님은 경전 속에만 있는 '비폭력'과 '평화'의 삶을 현실로 끌어낸 인물이다. 태국에서 작사가와 텔레비전 프로그래머로 부와 명성을 누리던 그는 "부와 명성과 안락이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를 정복할 수 없었듯이 나 또한 정복할 수 없었다"며 출가를 결행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빙자해 타락한 주류승단을 꾸짖으며 '아속공동체'를 만들어 무욕과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5개의 아속마을공동체과 9개의 학교, 6개의 채식레스토랑, 4개의 유기농비료공장, 3개의 쌀 방앗간, 2개의 허브 의약품 공장, 하나의 병원, 160헥타르의 농장에서 붓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주영 씨는 영웅이 아닌 평범한 민초들의 삶을 치열히 탐구해 역사소설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은 작가다. 1971년 단편 '휴면기'로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1979년부터 '객주'를 연재하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활빈도〉, 〈야정〉, 〈화척〉 등 주로 대하 역사소설을 집필해왔고 여든에 이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기층 민중의 삶과 당대의 풍속을 그려내는 탁월한 기량과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다수 발표한 업적, 해외 문학 교류 분야에서도 성취를 보여줬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시인 신달자 씨는 처녀시집 〈봉헌문자〉를 필두로 〈고향의 물〉, 〈아버지의 빛〉, 〈어머니, 그 삐뚤빼뚤한 글씨〉, 〈열애〉, 〈종이〉를 비롯하여 2년간 북촌 한옥에 살며 북촌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쓴 〈북촌〉까지 15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로서의 사랑, 나고 죽음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는 존재의 현상과 본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간의 실존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존재론적인 면을 주로 천착해 왔다.

한편, 만해축전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거행된다.

선학원 20대 이사장에 송운 스님 선출



재단법인 선학원 제20대 이사장에 前 총무이사 송운 스님〈사진 위〉이 선출됐다. 이는 지난 12년간 삼선 이사장으로 숱한 논란을 빚었던 법진 스님 체제가 마무리되고 신임 이사장 체제가 열리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학원 이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은 7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송운 스님(아산 보문사 주지)을 선출했다. 송운 스님의 임기는 오는 9월 18일부터 4년간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송운 스님의 이사장 선출은 지난 12년간 사실상 독주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해 온 법진 이사장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선학원 이사회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은 물론, 법진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송운 스님이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학원 안팎에서는 이사회의 일부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과 "법진 스님의 꼭두각시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송운 스님을 이사장으로 9월 출범할 20대 이사회가 향후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0대 이사장 송운 스님은 평창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4년에는 조계종 제8대 · 15대 · 23대 총무원장과 선학원 제6대 이사장을 역임한 석주 정일(昔珠 正一) 스님을 법사로 입실 건당했다. 1979년부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소임을 맡았고 2016년 재단법인 선학원 범행단 총괄단장 소임을 맡아왔다. 현재 아산 보문사 주지다.

한편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는 이날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덕, 철오, 현보, 혜광, 보운, 영주, 담교 스님을 재선출하고, 감사 영은 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불살생 가르침 의약 개발서도 실천

국내 최초 '비동물실험' 개발

동국대가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개발해 불교의 불살생 가르침을 의약 개발서 실천하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동국대는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면서도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 시험법은 국내 최초로 OECD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 가이드라인으로 공인받았다.

동국대 박유헌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기존 시험법의 치명적 단점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간섭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결해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법 개발에 기여했으며, OECD 주관 국제공동검증연구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해 시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방과 후 교실 아닌 '법회 후 강연' 어때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 신도 네트워크 20년 비결

법률상담 · 초빙강연 등으로 현재 200여 회원 규모 증가



조계사 안심당은 일요법회 봉행팀의 보금자리다. 대웅전 법회 후 강연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20주년을 맞은 봉행팀원들이 발원하고 있다.

이제는 당연시 된 '놀토'와 '주5일 생활패턴'이 생소했던 2000년 7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작은 모임이 출범했다. 토요일 휴무와 사찰의 양력 행사에 맞춘 조계사 일요법회를 지원하기 위해 봉행팀이 탄생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974년 시작된 불광사 일요법회와 1997년 시작된 길상사 일요법회 등 소수 사찰 외에는 일요법회 개념조차 모호하던 때,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일요법회의 전면시행은 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7월 5일 조계사 안심당에서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법회는 조계사 행정국장 홍재 스님을 법사로 조계사 안심당에서 50여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초기 30여명에서 현재 200여 회원을 두고 있는 조계사 最古팀으로 각황사 시절부터 간간히 진행돼 온 일요법회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요일마다 계층법회가 열려 일요법회만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 아직도 일요법회가 이른바 '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법회 봉행팀의 법회 후 활동서 찾을 수 있다. 법률 상담부터 유명강사 초빙 강연, 레크리에이션 진행, 한방 진료 등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보통 일요법회라 하면 법회 후 산회가 일반적이지만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회 후 안심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법회를 갖는다. 법회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최정숙 일요법회 봉행팀장은 "첫째주에는 사중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고, 둘째주 만발공양, 셋째주 초청강연, 넷째주 복지관 봉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섯째주에는 관음성지, 유네스코 사찰순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요법회의 경우 결국 도움이 되는 법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인 팀원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팀 활동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프로그램 진행 효과로 평균연령 60대에서 최근 30대와 40대 팀원이 늘고 있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신도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지역포교를 위해 구성된 5개 지역본부와 함께 소임, 포교, 사회, 교육, 수행 등 5개 분야 본부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 산하에 4개 팀, 소임본부 내 19개 팀, 포교본부 6개팀 1개회, 사회본부 5개팀, 교육본부 4개팀, 수행본부 3개팀 등 총 42개 1개회가 세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사찰안내팀, 접수지원팀 등 소임본부 내 19개 팀 중 하나로 신도조직화 사업 초기 구성된 팀 중 하나다.

김문주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사찰이 하나의 사부대중 공동체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도 개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신도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64(2020)년 사찰 및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종 승려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불기 2564(2020)년 사찰 및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시행합니다. 분한이란 우리종단에 소속되어 수행정진 중인 스님(교임·전법사)에 대하여 종법에 따라 5년마다 그 신분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본종 수행가풍 진작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금번 분한신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활한 종무행정 수행과 본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량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원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①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불기 2564(2020)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
②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 불기 2564(2020)년 10월 1일~12월 31일(3개월)

2. 신고대상: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 승려, 교임, 전법사

3. 서류접수처
① 소속 교구종무원
② 서울, 경기로 교구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 교구종무원으로 서류 제출
③ 사고교구 종무원의 경우 총무원으로 서류 제출

4. 신고서류
①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신청서 1부(대표자 증명사진 부착)
②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
-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서 1부(증명사진 부착)
※신고서류 교부: 각 시도교구종무원 및 종단홈페이지(http://www.taego.kr)에서 다운로드

5. 분한신고 수수료
① 사찰등록증갱신: 10만원
② 승려분한신고 : 3만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찰은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신청서만 제출(수수료 면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적한 승려(교임·전법사)는 분한신고서만 제출(수수료 면제)

6. 주의사항
① 본종 징계법에 의거, 재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징계법에 규정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분한신고에서 제외함
② 2020년도까지 미납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함
③ 신고 기간 내에 사찰등록증갱신 및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법 제14조(승려분한신고)에 의거, 승려자격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적 직권말소 및 분한 정지에 따른 본종 승려(교임·전법사)로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

불기 2564(2020). 6. 30.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행복한마을, 채식공양으로 마음 담다

휴심성 불사 착공 기념 대중공사 눈길

휴심정 불사 착공과 함께
창립 14년 기념 의미 담아
3사 대중에 채식 공양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사 착공을 행사가 아닌 삼보사찰 대중공양으로 회향한 특별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대표 은산)은 7월 12일 휴심정 불사 착공과 창립 14주년을 맞아 해인사에서 대중공양을 올렸다.

이날 대중공양은 행복한마을 창립 14주년과 사부대중 공동체 처소인 '휴심정' 불사 시작의 의미를 담아 삼보에 감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휴심정'은 '마음이 쉬는 정원'이란 뜻으로 행복한마을 내 재가불자들의 주거 공간이다. 공동체에서 수행하고자 발원하는 재가자들의 요청으로 거창 행복한 마을 내에 12가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8가구가 새롭게 만들어 질 예정이다.

이번 삼보 대중공양은 6월 30일 통도사를 시작으로 7월 12일 해인사서 진행됐으며, 7월 26일 송광사서 진행된다. 해인사 대중공양에는 거창과 부산에서 수행하는 행복한마을 대중과 부산 영도 미륵사 불자 등 27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 마을이 7월 12일 해인사에서 대중공양을 올렸다. 창립 14주년과 공동체 재가자 주거 공간 휴심정 불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공양을 올린 대중들의 모습.

대중공양 음식은 곤약으로 만든 '채식 스시', '아보카도 롤', '간장버섯 밀불고기', '콩까스', '양장피', '꼬지 산적', '비빔 메밀국수', '팔보채' 등 27가지로 모두 채식 재료만으로 만들어 졌으며, 특별히 제작한 두부도 함께 올려졌다. 또,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콩까스와 거창서 생산된 일등품 사과로 만든 특제 소스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에 공양물로 올려진 두부는 행복한마을이 공동체 자급자족을 위한 마을기업 생산제품 차원으로 현재 일반 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국산콩과 모링가 잎을 사용해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제품이다.

이번 대중공양에서는 공양을 올리기 위한 대중들의 정성도 남달랐다. 공양 3일 전부터 대중들은 밤을 새며 함께 준비했다. 통도사 대중공양서는 한 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며 준비를 했다.

전재선 前 행복한마을 신도회장은 "평소 500인분을 마련하는데 200인분으로 줄여 준비했다.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숙희 씨(베지나랑 채식요리사)는 "오늘 이 공양을 올림으로 공덕을 쌓고 지혜를 얻길 발원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했다"고 말했다.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공양을 올림으로 가르침을 실천하고 대중이 하나 되는 기회가 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숙희 씨는 "수행에서 스님께 배운 바를 실천하는 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며 "수행 실천의 장으로 삼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늘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마을은 사부대중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는 공동체로 현재 채식식당 베지나랑, 나랑 명상센터, 자급자족을 위한 마을 기업, 행복한 공양주 양성 프로그램 등을 공동 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바른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는 수행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완도 신흥사 대웅전 불사 회향

완도의 청정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대웅전을 수리보수하고 새로운 기도공간으로 재탄생했다.

7월 11일 대웅전에서 진행한 대웅전 해체보수 회향 준공식에는 前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前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대구 보광사 화명 스님을 비롯해 완도지역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 신우철 완도군수,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이날 법회는 삼존불과 후불탱화 점안식도 함께해 새로 수리된 대웅전에 봉안됐다.

법문에 앞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대웅전이 쓰러지고 있다'라는 말이었다. 부처님을 모시면서 사는 제자 입장에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신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마음을 내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한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견강암, "어르신 코로나 이겨내세요"

초복 맞아 건강기원 삼계탕 공양 올려

자비실천 도량 견강암이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삼계탕 공양을 올렸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7월 15일 모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사랑의 삼계탕'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삼계탕은 총 400인분이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도시락으로 포장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삼계탕 공양비는 견강암 백중기도 동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 향공 스님은 "사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나의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나누우리, 나눔으로 돌아본 10년

10주년 창립기념 법회 봉행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7월 1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나누우리는 10주년을 맞아 장애인 및 환자를 위한 치료 후원비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법회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 스님, 나누우리 상임이사 묵원 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동참했다.


(사)나누우리는 7월 1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발원문 △묵념 △나누우리 활동소개 및 동영상 시청 △내빈소개 △치료후원금 대상 환아 소개 및 후원금 전달 △창립기념사 △축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축하 케익 절단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치료 후원금 대상자는 경상남도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타에서 추천 받은 강희진 (가명 · 10) 소아뇌질환자 외 2명이며 각100만원, 총300만원을 전달했다.

감사패는 하경목 BTN불교TV 기자와 신원식 도서출판 중도 대표에게 전달됐으며, 공로패는 대외협력이사 자우 스님, 홍보이사 무종 스님, 김종호 나누우리 이사에게 수여됐다.

이사장 도산 스님은 "10년이란 세월 속에 동참해주신 모든 스님들과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쉼 없는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정한 불심 일깨우기 위해 최선을"

성각 스님, 법무부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모든 인간이 청정한 불심(佛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사진>이 제38회 법무부 교정대상 자비상을 7월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했다.

성각 스님은 30여 년 전 마산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시작해 현재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과 인연을 맺고 영치금 및 명절 합동차례 지원 등으로 보살행을 실천했다. 특히 스님의 선화 24점을 진주 교도소에 기증해 맑고 청정한 불심을 일깨우고자 노력했으며, 현재 이 작품들은 수용자와 직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에 '가온길 갤러리'란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다.



성각 스님은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 고

원로회의 및 종정추대회의 결과

한국불교태고종은 7월 15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개최한
원로회의 및 종정추대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원로회의는 재적의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제5대 원로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원로회의는 또 공석이었던 종정 스님을 추대하기 위해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이 참여하는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추대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종단 정상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0세 종 정 : **지허 대종사**
제5대 원로회의 의장 : **도광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 **대은 스님**
원로회의 차석부의장 : **설운 스님**

불기 2564(2020). 7. 15.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 명

현불 논단

자살과 四聖諦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에
국민들 황망… 이후 상황도 우울

예나 지금이나 자살은 부정 인식
삶의 괴로움과 무상을 인정 않고
회피하려는 無明의 행동이 '자살'

'삶은 고통'이며 그 원인은 갈애
고성제 집성제 가슴에 새겨보자
고해의 바다서 익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은 황망한 혼돈의 늪에 빠져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사슬에 얽혀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故박원순 前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멍한 상태에 빠져 있다.

故박 前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 발전에 큰 축으로 역할을 해 왔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 사람이 비서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故박 前시장의 영결식 이후 전개되는 여러 상황과 담론의 수준은 우리를 우울케 만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살에 대해 인류가 공유하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고 또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삶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칸트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인간을 한낱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쇼펜하우어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으로 본다. '이타적 자살'도 있다. 베트남 스님들의 독재 반대나 티베트 스님들의 독립 쟁취를 위한 소신공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론적인 자살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2003년 이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자살 사망률 1위를 이어 오고 있다. 자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이 6조 48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한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존경과 비전의 표상이 된 유력 정치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으니 청소년에게 모방 자살의 유혹을 줄까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된 것인가?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여 왔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붓다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사성제(四聖諦)'이다.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고성제, 괴로움은 갈애와 집착으로부터 생긴다는 집성제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멸성제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방법인 도성제가 그것이다.

이 사성제는 붓다 가르침의 기본이요 핵심이다.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자살 방지와 예방에 제일 중요한 치유약이다. 산다는 것은 바로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과 무상을 삶의 양식에서 거부할 때 고해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이다. 익사의 한 형태가 바로 자살이다. 고와 무상을 일상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마음과 큰 지혜로 고해의 바다를 넘어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 고성제가 사성제의 으뜸인 이유가 다 있다.

다음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이 갈애와 집착임을 알 때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엔진을 단 것이다. 필자는 고성제와 집성제만 가슴에 새겨도 자살의 유혹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살은 결국 삶의 괴로움과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무명의 행동이다. 여기에 한국불교의 과제가 있다. 사성제라는 진제, 즉 궁극적인 진리를 자살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연결시키는 세속제, 즉 일상적 진리로 전환시키는 연구와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성제의 지혜를 이 땅의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사회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탐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불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니 이를 어쩌랴.

社說

태고종,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지허 스님이 추대됐다. 前 종정 혜초 스님의 임기가 2019년 4월 만료된 이후 1여년간 공석이었던 종정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셈이다. 한 종단의 종정은 법의 상징이자 종단의 정신적 스승이다. 때문에 늦게나마 지허 스님이 새로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이를 종단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세월 태고종은 각종 분규로 어지러웠다. 무엇보다 편백운 스님으로 인해 불거진 최근의 종단사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내 종단 순위가 격하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이 같은 혼란 속에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전국 태고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고, 태고종은 그동안의 곪은 상처를 조금씩 걷어내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가 유독 반가운 것은 이 같은 정상화 노력에 종정 스님의 존재가 굳건한 울타리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지허 스님은 태고종에서 손꼽히는 선지식이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당대의 큰스님들을 만나 불법을 깨쳤으며 교학은 물론, 한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선승으로 일컬어진다. 대중들에게도 적잖이 알려졌다. 순천 선암사 아래 금둔사를 중창하고 거주하면서 한국전통 차와 차문화를 복원, 확산시켜 온 주역이기 때문이다.

태고종은 종정 추대를 계기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종정 스님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한다. 계파와 이해관계를 따지며 과거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종정 추대를 계기로 모든 태고종도의 마음이 종단 발전을 향한 하나의 굳건한 원력으로 모이길 발원한다.

조계사 일요법회 20년, 성공비결은

음력의 의미가 쇠퇴하고 도시 중심의 생활이 진행되는 현재, 일요법회는 주요 법회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찰들이 일요법회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요법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일요법회 만의 특색이 없단 점이다. 각 사찰은 초하루 법회 이외에 어린이 법회, 거사회 법회 등 계층별 다양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일요법회 정착기와 달리 기도 중심의 초하루 법회 외에 '일요일'이란 시간적 차이 말고는 특장점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란 듯이 극복해 낸 좋은 사례가 있다. 7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의 사례다. 2000년 7월 초기 30여 명으로 시작한 일요법회 봉행팀은 200여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일요법회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운영, 어르신들이 쉽게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담 진행, 성지순례와 사찰 체험 활동 등의 운영이다.

문득 '이런 것이 일요법회인가'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은 일요법회를 진행한 후 이러한 강좌를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갖는다.

신도들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도네트워크 구성에도 효과적이다. 평균연령 60대 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 점차 연령대도 낮춰가고 있다.

'일요법회'는 이제 한국불교계에서 흔한 법회 형식이 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일보한 일요일만의 특색있는 법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필요하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임종까지 佛子로 살다

코로나19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은 아직 환우들을 찾아 병실 방문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 요청으로 모든 종교실 문을 닫아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한 환자 때문에 법당 문만 열어놓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는 입원 중 병원 법당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문에 붙여진 부처님 포스터를 보고 위안 받아 매일 문 앞서 기도를 올렸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봉사자들은 법당 문이라도 열어야한다는 데 마음을 모으고 법당을 개방했다.

어제는 병원 법당을 찾았다가 호스피스병동서 인연이 된 보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는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직장에서는 리더로,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2018년 이맘 때 쯤,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 보살은 나를 반기며 상담을 청했다. "스님 제가 개종해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답답해서 스님께 여쭈려고요." 그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용인 즉, 남편은 현재 말기암 환자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병원비에 대한 고민에 쌓여있는 중이고, 남편의 형인 시숙이 '개종'을 권했다고 한다. 개종하면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 등을 책임져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남편은 개종을 거부했고, 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다며 상담을 청했다.



그림 · 최주현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 개종이라는 순수치 못한 제안을 하는 친척들에 대한 화가 일어났다. 병석에 누워있던 거사는 나를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했다. 아내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키고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불교와의 인연, 법명을 받게 된 일 등을 얘기할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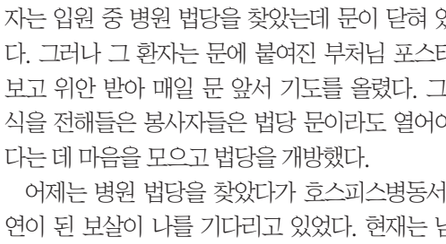
나는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49재는 일산병원법당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했고, 환자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합장했다. 이후 나는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담당 제작진과 이 대상자에 대해 상의했고, 곧바로 사례자로 채택돼 방송됐으며, 며칠 후 안타깝게도 그는 임종했다. 나는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서 불교식 임종 기도를 드렸다. 종교가 다른 가족들도 그때는 별 저항 없이 내가 진행하는 의식에 순응하며 환자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고했다. 그렇게 환자는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고귀하게 생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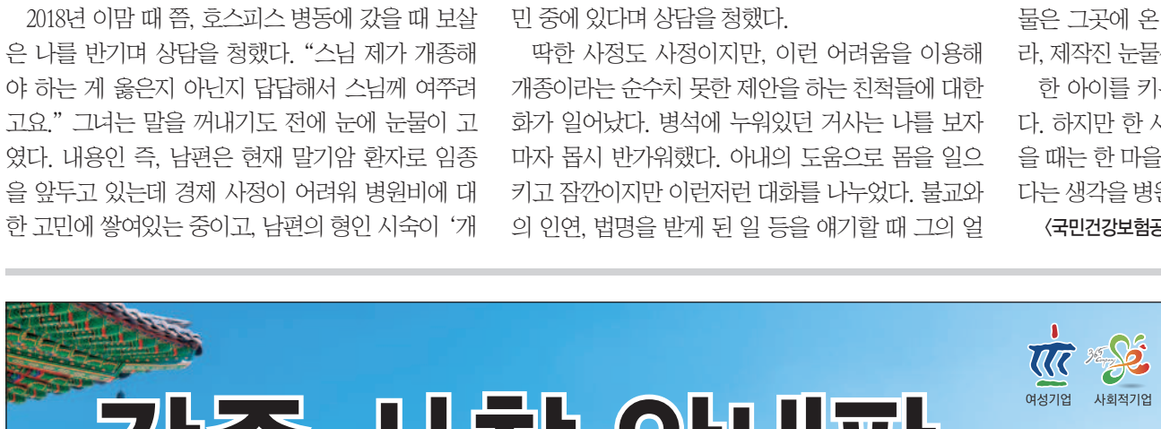
한 달 후 BBS 불교방송국 법당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서 보살님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 눈물은 그곳에 온 다른 사례자들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제작진 눈물샘도 자극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병고의 고통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한 마을뿐 아니라, 한 종교의 힘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병원 현장서 느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종 사찰 안내판(문화재) 제작전문업체
※ 모든 안내판은 태양광 조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사찰 도로교통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판 • 유도 안내판
• 사찰 내 게시판 • 각종 안내판 일체


사찰의 각종 안내판 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 제작·설치, A/S까지 책임시공!
산업디자인(종합) 인증업체, (주)김스애드


KimsAD (주)김스애드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474(망우동) T. (02)437-9151 / HP. 010-2224-9151

연구원 채용 공고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불교학 및 대행선의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자 격 불교학 또는 선학 관련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증 사본 1부 2) 이력·경력서(사진 첨부, 본인 사인) 1부 3) 관심분야 연구계획서 1부
* 채용인원 0 명
* 서류제출기한 7월 25일까지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고
* 근무조건 주 3일 (매주 일요일을 포함한 그 외 2일의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 주 업 무 1) 연 1회 학술대회, 연 4회 계절 발표회 준비 2) 연 2회 『한마음연구』 논문집 발간 업무 : 논문교정 등 3) 기타 연구원 업무 동참 4) 연 1편의 논문 발표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최종 결정함
* 월급여액 내부규정에 의함
※ 제출 e-mail : ds7788@hanmaum.org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내 대행선연구원
※ 전화번호 : 대행선연구원 031) 470-3276, 3277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5~7/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3	붓다 중도로 살다 : 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스님	불광출판사
4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회
5	약사경	현담스님	선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7	아미타경 핵심 강의	정종법사 / 정전스님	운주사
8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라	어정현	운주사
9	보배경 강설 : 재난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일창 담마간다	불방일
10	우주의 중심 : 카일라스	김규현 / 이상원	마음여행

책세상

108코로 짠 法의 그물 던지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5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09년 초판, 개정 증보판
인용출처 용어정의 등 보강
불교 핵심대의, 현대물리학
불교역사, 자신의체험 망라
저자가 평생 가슴에 새겨온
108개 깨달음 이야기 엮어



저자 황경환

"태어난 모든 존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들이 안고 있는 고통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2009년 출간됐던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저자 황경환 (사)21세기 불교포럼 공동대표는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출간의 이유를 위와 같이 시작했다.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살면서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된 108개의 이야기로 꾸민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모든 존재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안고 사는 고통을 여의고 행복한 삶의 길로 가는 로드맵이다. 저자는 각자의 굳어진 '의식'은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든 일을 해 내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를 돕기 위해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고 말한다.

개정증보판이 출간된 이유는 저자가 영문판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깨달음에서 건져 올린 108개의 보석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판까지의 원본 텍스트에 부족함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용 부분의 정확한 출처, 언어의 명확한 정의 등을 보강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려는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와 평화, 청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다. 한마디로 불교는 무명의 족쇄를 어떻게 하면 풀어 버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습득한 지식을 통해 인식과 마음에 더불어 있는 이 한 몸뚱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자라는 심리현상의 무상(無常)을 철견하고 무명을 밝힘으로써 수없는 생사의 윤회세계에서 고통(生老病死)의 종말을 제시해 주신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행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다. 책은 무명의 족쇄를 풀지 못한 대중의 원군으로서 존재한다."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무명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구도자를 위한 것으로, 108개의 이야기는 그들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가 평생에 걸쳐 지어온 '법의 그물'이다."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에는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는 어느 선지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저자는 인생과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화두를 품고 사는 진실한 구도자가 걸려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07구절을 흘러간 이에게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원군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책을 펴냈다.

책의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책 속에는 불교의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 보이는 과학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시공간의 세계를 받아들인 과학자 알랭 아스페,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고스와미 박사, 아이작 뉴턴 이후 객관 세계의 담을 무너뜨린 '불확실성의 원리'의 하이젠베르크, 카오스 이론과 나비효과의 에드워드 로렌즈 등이다. 현대의 양자물리학은 오감의 세계를 포함하면서도 또 넘어서 있는 세계가 있음을 가리켜 보이기 시작했고, 날로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3차원의 현실에서 살지만 '한 길 몸뚱이'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의식 상승이 가능함을 역설하는 불교적 진실과 통하게 된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와 팔정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이다. 책은 불교의 이 핵심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행상

저자 황경환은 울산 온산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윤리교육학과)을 수료했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과 인연하여 25년간 이 단체의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또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PTP(People To Peopl ·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민간외교 단체)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과 1997년 국제 PTP 한국본부 총재직을 역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무명(無明)에서 비롯한 나라는 관념(觀念)을 깨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면 생로병사(生老病死)란 꿈속의 꿈이요. 무명에서 비롯된 나라는 관념의 족쇄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일 수밖에 없다.

고타마 붓다는 이러한 무명(無明) 중생(衆生)의 삶을 처절한 고통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주눅 들거나 약해지지 말자. 자신의 운은 스스로의 운에 맡겨라.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일어날 것이고, 넘어져 사라질 일이라면 사라지는 대로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평정한 마음이란 좋다고 집착하고 싫다고 밀치려는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반복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묘한 이치가 있으니,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요 지혜로움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함으로써 고래(古來)로부터 우주와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話頭)를 고도의 현대과학을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 과학과 불교의 진리가 하나로 점점 조우 합일(合一)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성묵스님의 漢文/한글(겸용)종합의식집 한권으로 7가지의 염불을 할수있는 ⑨권과 ⑨-1번, ⑨-2번으로 분류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십구재 입재 → 사십구재 → 일반 천도재 → 생축불공 → 한문염불 → 한글염불 → 경전공부까지 해결됩니다.



신권소개 ⑨번, ⑨-1번, ⑨-2번

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50,000원)
⑨-1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⑨-2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 한권의 경전으로

성묵스님의 스테디셀러 소개 (스프링 제본)

① 漢文/한글(겸용) 예경/각청 (20,000원)
② 漢文/한글(겸용) 천도/시식 (20,000원)
③ 漢文/한글(겸용) 수계/방생 (20,000원)
④ 漢文/한글(겸용) 장 의 (20,000원)
⑤ 漢文 점 안 (20,000원)
⑥ 漢文/한글(겸용) 독 송 집 (20,000원)
⑦ 漢文/한글(겸용) 토속 모음 (20,000원)
⑧ 漢文/한글(겸용) 지 장 경 (20,000원)

구 입 처 총무보살 **010-7144-7339** · 성묵스님 **010-5277-8024**
계좌번호 **농협 735091-52-058288** (예금주 : 박명덕)

日, 영가 이름인 '계명' 두고 논란

〈戒名〉

시다림 의식서 영가 수계
보시금 따라 계명도 달라
금전적 활용에 의미 퇴색
"비불교적인 전통"비판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각 가정에는 계명이 쓰여진 선조의 위패가 불단에 모셔져 있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불자가 수계를 받게 되는 계명(戒名)은 한국에선 흔히 법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죽은 후의 고인에게 붙이는 영가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 계명을 둘러싸고 일본 불교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11일 일의 '야후 재팬뉴스' '오토나 앤서' 등의 매체들은 계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비판들을 보도했다.

같은 대승불교권 국가이지만 불교의 신행활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한일 양국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계명, 혹은 법명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불자로서의 입문인 수계를 받고 신행의 길잡이를 삼는 의미로 법명을 계사스님에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인이게 붙이는 영가의 이름으로 계명이 통용되고 있다.

이는 중세 이후로 일본에서 정토신앙이 강해진 데서 유래한다. 살아생전 공덕과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사후 극락에 왕생한 이는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성불하기 위해 부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영가의 이름으로 계명을 붙이게 된 유래로 전한다. 실제 일본의 시다림 의식 가운데 영가에게 수계를 하고 계명을 전하는 의식이 들어있다.

이러한 일본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종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살아생전의 신행이나 수행정진의 단계에 따라 계명 앞에 도호(道號)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경우가 있다. 또 사회나 종단 등에 큰 업적을 세운 이에게는 원호(院號)라고 하는 특별 법명이 추가되기도 한다.

문제는 현대에 와서 이러한 계명의 구성과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이 강력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계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후에 계명을 붙이는 것은 일본에만 있는 전통으로 불교 고유의 모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겨우 몇 글자 남짓한 계명을 위해 몇 십 만엔서부터 몇 백 만엔까지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계율적으로 합당한 일인가?"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비싼 계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원호, 도호, 계명을 모두 포함한 이름을 말한다. 살아생전 큰 업적이 없거나 수행정진이 없더라도 고액의 금전을 지불하면 모든 계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사찰의 한 주지스님은 "가장 상급의 계명인 원호의 경우, 지역이나 사찰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십만엔 정도면 교부받을 수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는 "몇몇 글자의 경우 출가자에게만 쓸 수 있음에도 '스님들처럼 멋있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고 고액을 내밀며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계명 시스템에 반대하는 측은 "일본의 계명 시스템은 옛날의 순수했던 신앙적 기원과는 멀어져, 사실상 금전적으로 풍족한 이들을 위한 겉치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계명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켜야 한다는 측의 반론도 존재한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계명의 구성이 어찌 되었든, 그 뜻은 고인이 극락왕생, 혹은 성불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을 쉽게 무시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또 어느 스님은 "종종 계명이 아닌 생전의 실명이나 스스로 지은 아호 등을 계명으로 삼아 천도재를 지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이 경우 전통적인 의례체계에 맞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불교의 오랜 전통인 '계명'이 현대에 뜨거운 논제로 분분하다.

부처님과 사랑 인연 맺어요

日센토지, 관세음보살 판넬
기념촬영 명소로 SNS 화제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는 기념촬영 판넬, 사진출처=마이도나 뉴스

흔히 사랑의 인연을 '붉은 실을 묶여 있다' 라고 비유한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과 붉은 실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7월 1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마이도나 뉴스' 등의 언론들은 이 특별한 모습을 보도했다.

오사카시 히라노구에 소재한 센코지(全興寺)는 고대 일본불교에 중요인물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이다. 센코지는 시내의 상가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는 등 지역친화적인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유서 깊은 사찰에 최근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겼다. '붉은 실의 인연맺기' 는 이름이 붙은 기념촬영 판넬이다. 판넬에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에는 촬영자가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놓여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이 묶여있고 실의 다른 끝은 벤치의 끝을 향해 있다. 기념촬영을 위해 벤치에 앉아 실 끝의 고리에 손가락을 넣으면 센서가 반응, 관세음보살님과 연결된 실에 붉은 불이 들어온다. 심지어 혼자서도 찍을 수 있게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판넬 앞에 설치되어 있다.

센코지 측은 "흔히 고전에서 연인간의 사랑의 인연을 '새끼 손가락에 붉은 실을 묶었다' 고 표현하곤 한다"며 붉은 불이 들어오는 실 모양의 조형물을 만든 모티프를 설명했다. 센코지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기, 지난 5월 하순에 설치가 완료됐다. 이후 독특한 구성과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놓인 사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모으며 유명해졌다. 주지인 카와구치 뮤닌 스님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사람간의 인연을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떨어져 있더라도 모두 연결된 세상 아닌가"라며 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센코지 측은 SNS를 통한 사찰 홍보를 의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찰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QR코드를 이용한 사찰의 안내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등을 경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구서 가장 먼저 일출 만나는 '불탑'

티베트 사원 팰풍 불교센터,
뉴질랜드에 불탑 조성 추진



기즈본 팰풍센터에서 포교 활동 중인 카르마 도제 스님과 카르마 담최 스님. 사진출처=기즈본헤럴드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불탑이 뉴질랜드에 조성된다. 지난 7월 11일 뉴질랜드 지역 신문 '기즈본헤럴드' 는 기즈본시에 소재한 티베트불교 사원인 팰풍 불교센터의 불탑 프로젝트를 특별 보도했다.

뉴질랜드 북섬 북동쪽의 지방도시 기즈본에는 팰풍 카규 삼탠 쵤링(Palpung Kagyu Samten Choling)불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북섬 북동부 최초의 불교사찰인 이곳은 2000년 7월 개원하였으며 티베트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카규파 소속이다. 사찰의 이름은 '선정의 가르침이 퍼지는 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있는 팰풍사원의 공식 분원 중 한 곳이다. 팰풍사원은 18세기에 창건 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180여 곳의 분원을 두고 있다.

7월 11일 오클랜드 팰풍 불교센터의 주지인 소남린첸 스님은 "우리 센터의 본사인 팰풍사원에서 '기스본시에 불탑을 조성하라' 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린첸스님은 "팰풍사원의 방장이신 타이 시투 린포체님과 주지인 페마 된요 닝제 스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보는 이 길상한 땅인 기즈본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말했다.

불탑의 조성을 위해 팰풍사원은 기즈본 팰풍센터에서 포교활동중인 카르마 도제 스님과 카르마 담최 스님, 두 스님에게 북섬의 무라와이 해변부터 타타포우리 해변까지 해돋이로 유명한 여러 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린첸스님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일체의 장애물없이 볼 수 있을 것,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높은 지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 탑이 세워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보는 불탑이 될 것"이라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현재 조사를 마친 두 스님은 구글지도와 구글어스를 통해 인도의 팰풍 사원에 탑을 건립할 후보지를 보일 예정이다. 후보지 중 팰풍사원을 이끄는 스님들이 풍수지리,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최종 건설지를 확정한다.

불탑 조성지가 확정되면 불탑은 티베의 전통적인 규격과 조성작법에 따라 조성된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27m 높이의 탑이 조성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탑은 최소 4에이커의 면적이 필요하며 이는 축구장 2개 크기에 맞먹는다. 계획에 변경이 없다면 이 탑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탑이 될 것이다. 또한 불탑은 평화와 조화를 도모하는 장소로서 공원 같은 환경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린첸스님은 "티베트불교에서 불탑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며 화합하는 사부대중을 의미한다. 불탑이 서있는 곳은 그 주변 환경에 평화롭고 긍정적인 힘이 퍼지는데 강항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불탑과 주변의 공원은 기즈본 사람들과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기즈본 지방의회에 기증할 예정이다"고 불탑 조성의 의의와 계획을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베트남불교협, 불교 사진 공모전

9월까지 '불교와 삶' 주제로
인종황제 서거 712년 기려



베트남 사진공모전 기자회견. 사진출처=년전

베트남에서 불교를 주제로한 사진공모전이 개최됐다. 지난 7월 10일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년전(nhân dân)' 은 베트남 불교협회가 개최한 '불교와 삶 사진 공모전' 개최를 보도했다.

베트남 불교 종단협회는 베트남 남부의 고찰인 죽림선원(티엔 비엔 쭉럼)을 개산한 쩐 인종황제의 서거 712주년을 맞아 '불교와 삶' 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와 베트남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의 폭을 넓히는 사진이 모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베트남 불교가 사상, 철학, 문화, 역사 등 베트남의 다양한 측면에 존재한다는 것도 사진전의 주제에 깊은 연관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베트남에서 찍은 불교 건축물, 예불 의식, 죽림선원 사진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 까지 열린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모든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이 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 최대 10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수상 사진의 작가는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10월 15일 하노이의 문학사와 베트남 북동부에 있는 꽝닌성 옌뜨 유적지등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찰 수문장 된 인도의 神



이상근의
聖寶流轉
⑭ 금강역사







①, ②, ③ 흥국사 무사전 금강역사(①, ③)와 경주 괘릉의 이국적 무인상(②)의 모습. 괘릉의 무인상은 금강역사라는 주장도 있다.

꽤 오래전 얘기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로 몇몇 사찰이 산문(山門) 폐쇄를 단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산문 폐쇄'라고 적어야 할 곳에 '삼문 폐쇄'라고 적고 말았다. 단순한 오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산문과 삼문의 발음을 구별할 수 없어 한 실수 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켠으로 생각해 보면 삼문 폐쇄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사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문을 세 개 통과해야 한다. 거쳐 가는 순서대로 일주문 · 천왕문 · 불이문이다. 이 문을 모두 막아버렸으면 삼문(三門) 폐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삼문 구조가 사찰마다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일주문 · 금강문 · 천왕문 순서로 배치한 사찰도 더러 있다. 불이문 대신 좌우에 금강역사를 세운 문을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넣은 것이다. 또 어떤 사찰은 아예 일주문 · 금강문 · 천왕문 · 불이문 순서로 문을 네 개 만든 곳도 있다. 사문(四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삼문 형식을 파괴하기도 그렇고 금강역사를 뺄 수도 없으니 어떤 곳은 천왕문 벽 좌우에 금강역사를 그림으로 새겨놓은 곳도 많다.

금강역사는 원래 인도 고유의 신이었다. 그때도 수문장 역할을 했고 불교의 신을 자리매김하고 나서도 '수문장' 역할을 하는 신장(神將)이 되었다. 다만 역사(力士)와 천왕(天王)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천왕보다는 위계가 낮다. 그래서 더 멀리서 부처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문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금강역사의 쓰임은 많다. 석탑과 부도에도 새겨지고 신중탱화 등에도 자주 보인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금강역사가 있다.

명부전으로 간 금강역사

몇 개월 전 연재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사찰에서 가장 복잡한 전각 중에 하나가 명부전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지장전과 시왕전이 통합돼 만들어진 전각이니 지장보살과 협시 도명존자, 무독귀왕을 비롯해 좌우로 나란히 선 열 분의 시왕, 시왕을 대신해 심판을 하는 판관 두 명, 기록과 문서를 담당하는 녹사 두 명, 그리고 입구에 문을 지키는 장군까지 도합 29체의 존상이 있다.

이 중에 명부전 문을 지키는 장군은 도교에서 유래한 지옥의 권속이다. 원래 지옥의 장군은 세 명이었다. 흔히 삼원장군(三元將軍)으로 부른다. 상원주장군 · 중원갈장군 · 하원당장군이다. 그런데 세 명이 지키자니 한 명이 길을 가로막을 것 같고 길을 갈라 셋을 배치하자니 좌우수가 맞지 않는다. 하여 보통 중원갈장군을 빼고 좌우에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을 배치한다. 대개는 창이나 칼로 무장하고 있다. 나중에 이들은 명부전만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역할도 맡게 된다. 마을 장승 중 명문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대개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표시가 뚜렷하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불교에서도 '수문장' 역할을 하는 신장(神將)은 많다. 금강역사도 있고 사천왕도 있고 12신장, 그리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16선신(十六善神)도 있다. 문을 좌우에서 지켜야 한다면 둘인 금강역사가 맞춤이다. 하여 명부전의 장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금강역사로 대체되어 간다. 아직도 사찰을 방문하면 칼을 들고 험상 굳은 얼굴로 명부전을 지키는 도교의 신장과 (대개는) 험한 얼굴에 맨 주먹을 쥐고 있는 금강역사를 번갈아 볼 수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헤라클레스가 금강역사의 모델?

금강역사가 언제부터 신장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해 십여 년 전에 고대 인도신화와 의례연구로 박사를 받은 심재관 상지대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금강역사의 기원이 '헤라클레스'라는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금강역사가 헤라클레스로 서력기원 전후에 간다라 불교미술에 정착됐으며, 이후 대승불교 경전 찬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 神서 부처님 수호 神將 변화
명부전 삼원장군, 금강역사로 대체
금강 역사 기원 헤라클레스 주장도
경주 괘릉 이국적 무인상 '금강역사'

는 내용이 요지다. '손에 곤봉을 쥔 모습으로 인해 헤라클레스라는 인도식 표현법인 바즈라빠니, 즉 곤봉이나 몽둥이를 쥔 자라고 불렸고 이것이 고유명사로 정착했다'는 내용도 있다.

물론 금강역사가 '인도 신' 출신(?)이라는 게 정설이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야차(Yakkha, 약카) 같은 신중이 니까야(DN23)에도 간혹 보이고, 증일아함경 '육중품'은 니건자(尼乾子, 백의파 자이나교도)가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찾아왔다가 토론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부처님의 질문에 못들은 척 하며 대답을 피하고 이때 '밀적금강역사'가 나타나 대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을러대자 니건자가 공포에 떠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개의 함정이 있다. 간다라 미술은 기원 전후로 그 출발이 확실한데 경전의 결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다. 특히 증일아함경은 아함경 중 가장 후대에 결집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기원해 자리 잡았던 금강역사가 경전 속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반대편의 증거도 있다. 남방불교에서도 수문장 역할을 하는 신중이 있다. 몇 년 전 태국 왓 프라깨우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건물마다 거대한 신장이 앞을 지키고 있었다. 기원을 살펴보니 힌두교의 야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 외형이 얼굴만 빼고는 금강역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는 간다라에서 가까운 미얀마나 태국, 라오스 등으로는 가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만 전해진 것일까? 약간 의문이 들었다.

괘릉 무인상도 금강역사인가

마지막으로 금강역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장이 있다. 흔히 괘릉이라고 불리는 원성왕(재위 785~798)의 능에는 아주 이국적인 무인상이 두 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높이도 2.5미터를 훌쩍 넘어서고 왕방울만한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며 입술이며 모두 크고 두껍다. 이걸 교과서에서 배웠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이 무인상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대개 "서역문화의 영향을 통해 당시 통일신라의 교역이 중앙아시아 및 페르시아 지역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임영애 경주대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 하나를 내놨다. 이 무인상이 금강역사라는 것이다.

임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 중에는 최치원이 쓴 숭복사 비명(碑銘)이 있다. 이 비명에는 경문왕이 곡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숭복사로 이름을 바꾼 경위가 들어가 있는데 "선대(원성왕)를 계승해 절을 중수하고 위엄으로 능역을 '호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문장이 있고 임교수는 '호위'의 구체적인 의미를 석인상 설치로 봤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무인상에서 머리에 두른 띠나 허리에 찬 둥근 주머니와 같은 복식은 서역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 복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라 왕릉 십이지상이 입고 있는 갑옷이 사천왕상과 흡사하고 사자상도 불교 사자상을 닮는 등 불교 조각의 광범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이런 주장을 더 밀고 나갈 추가적인 주장이나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강역사가 헤라클레스라는 주장, 우리가 서역인을 모델로 한 것으로 만 알았던 괘릉의 무인상이 금강역사라는 주장 등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 나에게는 없다. 다만 이런저런 측면에서 문화재를 볼 수 있게 해준 여러 학자들의 혜안에 감사할 뿐이다. 가끔씩 이렇게 비틀어서 보거나 의심을 갖고 보는 게 답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때가 많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홀로’의 진정한 의미 ‘연기’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⑭ 내가 본 법정 스님 ①

“어째서 법정 스님 책을 자꾸 주느냐? 강원도에 홀로 사는 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2006년 스승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선배에게 건네고 나서 들은 말이다. 이 말이 오십 평생 일기도 쓰지 않던 내게 글을 쓰게 만들고 작가란 소리를 듣도록 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옹근 수행은 없다며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아우르도록 일깨워온 어른한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싶어 떨떠름했다. 그러나 곱씹어보니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묵은 살림을 버리고 떠나신 줄 모르는 이들은 ‘호젓이 누리려고 산에 들어가 사는 은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건 큰 오해다. 창건 초기 길상사에서 스승이 법문해야 하는 자리가 참으로 많았다.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법회와 여름 안거 겨울 안거 결제와 해제 법회가 네 차례로 이것만 더해도 열 번이다. 여기에 문화강좌와 수계법회, 템플스테이를 합치면 열서너 번을 훌쩍 넘긴다. 맑고 향기롭게 지부를 비롯해 다른 곳에서 열리는 법회나 강연을 더 하면 스무 번 가까울 때도 있었을 터이고,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다달이 싣는 원고와 언론매체에 보낸 원고를 합치면 쓰신 글만도 양이 녹록지 않다. 또 이런저런 인연을 타고 오는 편지나 엽서에 하는 답장까지 하면 참으로 얽히고설킨 것이 적지 않았다.

이웃 보살피는 일이 곧 여래 받드는 일

이토록 부지런히 움직인 까닭이 어디 있을까? 스승이 아우르고 불교성전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불교성전〉에는 보현보살 10대 서원인 보현행원을 다음과 같이 담아냈다.

“법공양에는 여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보살펴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보살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는 공양, 보리심이 떠나지 않는 공양들이 있다. …여래 말씀대로 수행함이 여래를 출현케 하는 일”

스승은 늘 “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 곧 여래를 받드는 일이다. 이와 같은 서원과 수행이 허공계와 중생계가 없어져야 그만둘 텐데, 사실 허공이나 중생은 다 할 수 없으므로 구도자가 할 일은 끝이 없다”라면서 “보살에게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곧 스스로 이롭게 하는 일이기에 이타가 곧 자리와 이어진다. 우리는 저마다 따로따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다. 그러나 화엄 거울에 비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임을 직관한다. 이웃이 겪는 일이 내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을 굳게 믿기에 이른다”하고 말씀했다.

또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는 “홀로라는 낱말 자체는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홀로 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아웃 사이더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디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낸다고 해서 과연 ‘홀로 있음’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가르침은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 곧, 개체의 사회성을 말한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한다.

‘홀로’라는 낱말은 물들지 않고 전체를 아우른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한참을 지나서야 가까스로 저다움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아우를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고 헤아렸다. 누구와도 닮지 않고 저다움을 드러내 누리를 아우른 석가모니나 예수야말로 세상에 살면서도 저 언덕에 가닿은 경계인이었다는 말씀이다.

함께 사는 사회 항상 강조
스승 존경조차 상낼까 거부
말한 그대로 실천모습 보여

나는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부챗살이 겹친다. 세상을 품겠다며 바깥으로 나갈수록 서로 멀어지지만, 안으로 들어 저다움을 빛낼수록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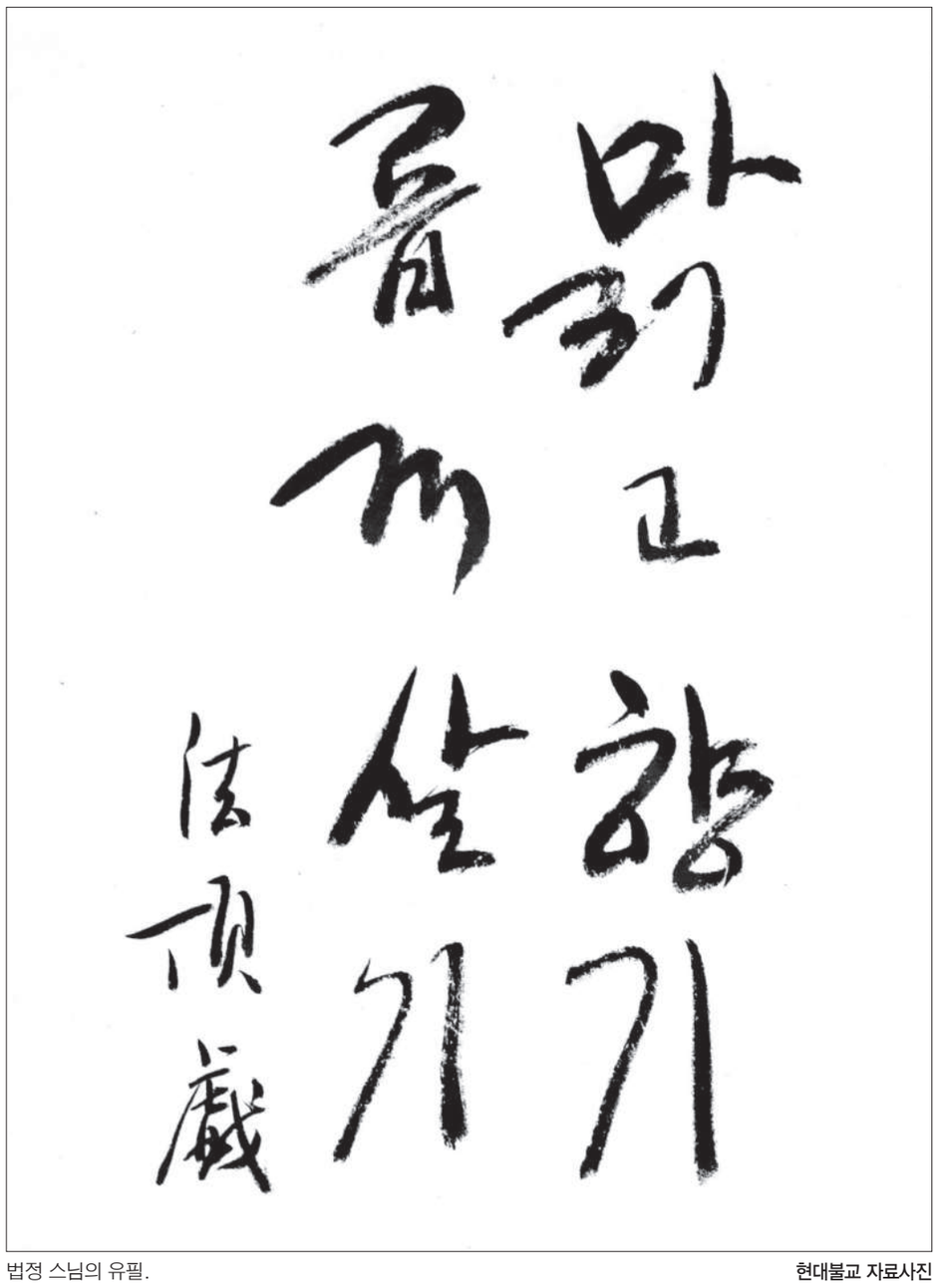
스승은 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상과 사랑”이라고 말씀했다. 명상은 여럿이 어울려 있어도 오롯이 홀로 들어가야 하지만, 얻으려는 것은 뿔뿔이 흩어진 ‘나’가 아닌 두루 어우러지는 ‘온 나’로 나아가는 길이다, 홀로 옹글 수 있어야 참답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스승은 늘 깨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저를 바꾸어 깊어지는 것이 명상이요, 따뜻한 눈길과 끝없는 관심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며 거듭 우리를 흔들었다.

강원도에 홀로 사는 스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알리고 싶었다. 스승이 스치기만 해도 베일 것 같은 얼음 선사가 아니라 시주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살갑고 도타운 어른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싶었다. 그래서 일기도 쓰지 않던 내가 다섯 해 동안 더듬더듬 주섬주섬 글쓰기를 해 적바림한 것이 〈법정 스님 숨결〉이다.

청법가 끝나도 법상 오르지 않은 스승

2000년 시월 정기법회. 청법가가 끝났는데도 스승이 법상에 오르지 않고 그냥 서 계셨다. 진행을 보던 나는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적막이 흐르고…. 가까스로 지난 법석에서 청법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스승은 사자후란 사자가 뭇짐승을 제압하듯이 부처님 설법이 중생 번뇌를 없애준다는 뜻이며, 감로법이란 불사와 영생을 이르는 진리인데, 덕도 높지 않은 제가 법문하기 전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삼배를 받을 때마다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가 대중을 자리에 앉도록 하여 입정에 들도록 했다. 입정을 마치고 나서야 법상에 오른 스승. 청법가를 듣기도 절을 받기도 민망하다고 하시지만, 대중은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엉겁결에 나온 소리가 “스님께 삼배를 올려야 하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앉은 자리에서 비손 반배로 삼배를 하겠습니다”였다. 옹색했다. 대중이 비손 반배로 삼배를 하니 스승도 마주 받아 비손 반배로 삼배를 한다. 맞절. 법문이 끝나고 산회가가 울리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른다. 그 뒤로 스승을 모시는 법회는 죽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스무 해, 마지막 법회를 한지도 열한 해가 지난 오늘까지도, 스승 뜻을 잘 짚었는지 잘못 짚었는지 알지 못한다.



법정 스님의 유필.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승을 난처하게 만든 적도 여러 번, 그 가운데 하나만 꺼내면, 2003년 여름 안거 결젯날이 마침 스승의날과 겹쳤다. 길상사 식구들은 이제껏 스승에게 고맙다는 말씀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니 이날 스승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자고 뜻을 모았다.

스승이 법석에 오르자 “모처럼 스승의날과 여름 안거 결제 법회가 맞물린 소중한 날입니다. 스승의날을 맞아 이 시대 스승이신 스님께 꽃을 올리겠습니다”라며 꽃과 향을 올리고 입을 모아 스승의날 노래를 불렀다. 받은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난 스승은 “왜 하지 않던 짓을 하느냐. 이 시대 스승이라니 당치도 않다”라며 도리질하셨다. 듣고 보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어떻게 스승이 서 계시는 데 “이 시대 스승”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까.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았다.

말하고 들음이 서로 오가야 좋은 법회

이런 아둔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한 달쯤 지나서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는 유월 정기법회, 스승은 이런 말씀을 한다.

“저는 대중 법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 바라보면서 묻고 답하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그립습니다. 진정 좋은 법회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주 바라보고, 서로 귀 기울이며, 같이 느끼면서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라야 진정한 만남이나 모이는 의미가 새록새록 싹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법회에 나오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시절 인연이 오면 그런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 거사림 회장이 전화해서 스승 법회 사회를 봐달라고 한다. 이달에는 스승 법회가 없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되물었다. 스승께서 거사림 가운데 열성을 보이는 몇 사람과 법담을 나누려고 하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셨단다. 지난번 말씀을 떠올리고는 소참 법문에 무슨 사회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이 뜻깊은 자리를 어떻게 우리만 누릴 수 있겠느냐며 거사림만이 아니라 보현회를 비롯해 절에 나와 힘을 보태는 이들에게 다 연락을 했으니 백여 명을 웃돌 것이라고 했다. 마음결이 고운 이다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아니, 회장님.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요? 스승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요? 스승은 이번 법담을 시작으로 거사림 뿐 아니라 보현회, 합창단을 비롯해 절에 나와 애쓰는 이들과도 거듭해서 깜냥에 맞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시는 것이잖소.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다니…, 저는 못 갑니다. 낯부끄러워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소.”

뒤에 들으니 사람들이 설법전이 꽉 차도록 모였다고 한다. 묻고 답하는 소참 법문 틀에 따라 처음 나온 물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었다. 이 물음에 스승은 “해인명!” 하고 보현회 보살 가운데 한 분을 불렀다. 문밖에서 대중에게 올릴 다과를 준비하던 해인명 보살이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 뻥튀기에 놓인 귤과 과자를 손에 든 채 문 안으로 들어서자, 스승은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단다. 어긋난 사랑 탓이었을까, 아쉬운 물음 때문이었을까? 시주 은혜를 여법하게 되돌리려고 내디딘 스승 발걸음은 이어지지 않았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크게 얻은 것도 있다. 이번 일로 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머리를 꺼낸 스승은 반드시 잇따라 그 말씀 결대로 하신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이다. 그렇더라도 입맛은 썼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지리산 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계급 모순 한순간에 타파한 '불성론'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⑭ 남북조 시기 불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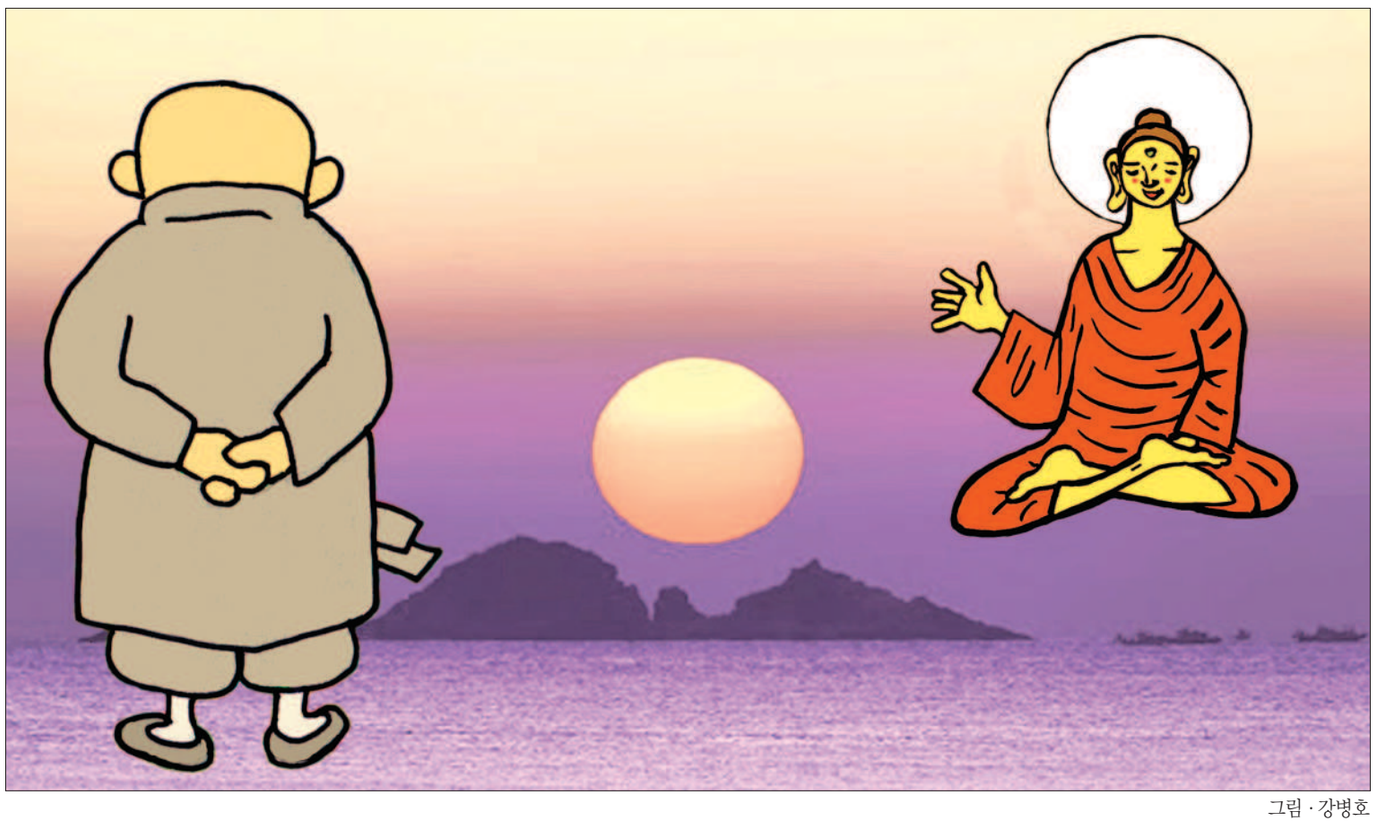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불성은 도대체 인성인가 아닌가' 에 대한 문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사회 및 정치문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조에 유행한 사부경(유마 · 열반 · 법화 · 화엄), 삼부론(섭대승론 · 십지경론 · 대승기신론)의 중요한 의제는 모두 불성에 관한 문제이다. 성불은 과연 현세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만약에 '불성' 이 있다면 '본유(本有)인가 시유(始有)인가?' 의 문제였으며, 만약에 성불을 한다면 타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력인가 등의 문제도 포함 되었다.

남북조에서 발생된 불성론에 관한 논쟁은 위진시기의 '반야공성' 이 유행한 후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불성의 문제가 전개된 것은 중국불교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 점은 불교 내부 교리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발견이자 논리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당시 사회의 계급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인도의 유가행파가 주장한 불성에 대한 '오종설' 은 당시 인도사회의 계급제도를 반영했던 것과 유사점이 있다. 중국에서 한말 이래로 세족문벌제도(世族門閥制度)가 형성됐는데 이러한 제도의 요점은 바로 문벌 출신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및 그에 수반되는 일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른바 "상품무한문(上品無寒門 · 상품은 가난이 없다), 하품무세가(下品無世家 · 하품은 세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남북조시기에 이 문벌사족제도의 발전은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제도였다. 비단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등 모두 문벌사족 출신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의 재능 및 인품의 우열조차도 모두 문벌사족출신들이 표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역시 이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성론의 논쟁은 바로 이러한 모순된 사회배경을 무대로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제도 및 사회적 제도 하에서 볼 때, 불성론은 매우 파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과 범부가 차이가 없고, 더욱이 불성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대등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계급적인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내지 불합리성을 한순간에 타파한 것이 바로 불성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잠시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했던 고유한 사상적 관습 및 관념을 살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경험에 입각해서 각국의 흥망성쇠와 혼란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을 총괄해서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정설(仁政說)이다. 그의 인정설은 이민위본(以民為本 · 백성이 근본이 된다)으로, 민본사상의 주요한 명구인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을 제시했다. 이 뜻은 백성이 우선이고 다음이 국가이고 군주는 최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백성과 사직에 비하면 군주의 위치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사직은 국가 존재의 기본 바탕이 되고, 군주의 지위 및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없으면 군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군주는 응당히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또한 위정자는 백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만약에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백성은 그 정권을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곧 이 내용은 군주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국가의 흥망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민심의 향배를 매우 중시하면서 역사를 반추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사례들을 인용해서 득천하(得天下)와 실천하(失天下)에 대한 문제를 논했다. 비록 맹자는 공자의 덕치(德治)사상을 계승발전해 인정(仁政)설을 발전시켜, 곧 이덕복인(以德服人)으로 그의 정치사상에 핵심을 삼기도

'佛性' 등장, 中불교 새 국면
"누구나 정진수행하면 成佛"
중국선종 탄생 결정적 역할
남북조시기 '불성' 사회이슈

했지만, 사실 맹자의 정치론인 인정설은 곧 왕도설로서 본질은 봉건정치계급의 봉사를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육체노동자와 정신적인 노동자를 구분해서, 육체적인 노동자는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당시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관습 및 관념의 사회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고유한 사상이 주류가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차에 '일체중생개유불성' 이라는 사상적 모토는 분명 어떤 부류(대부분 하층민)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이자 파격적인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 후 이 불성론이라는 사상적 개념은 중국선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동시에 선종의 양대 사상의 한 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일체중생개유불성' 이라는 사상은 당시 전쟁이 잦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하나의 빛이 되어 주었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준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초기선종의 형성과 성립과정 및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 해답은 더욱 더 선명해 진다.

따라서 남북조시기로 접어들면서 불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동시에 불성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대반열반경〉의 전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번역본을 의지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때 각기 다른 관점으로 불성을 바라보다보니 명칭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양상이 나타났다. 길장은 〈대승현의(大乘玄義)〉에서 말하기를 "경 가운데는 불성, 법성, 진여, 실제, 등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불성의 이명이다. 왜냐하면 〈열반경〉에서 스스로 불성에는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하나의 불성 이름이 법성 열반이며, 이름이 반야일승이며, 이름이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 사자후삼매(師子吼三昧)이다. 고로 알라 성현은 근기를 따라서 방편을 쓰기 때문이다. 모든 경 가운데 설한 이름이 같지 않다. 고로 〈열반경〉에서 이름은 불성이 되고, 〈화엄경〉에서 이름은 법계가 되고, 〈승만경〉에서 이름은 여래장자성청정이 되고, 〈능가경〉에서 이름은 팔식이 되고, 〈수능엄경〉에서 이름은 수능엄삼매가 되고, 〈법화경〉에서 이름은 일도일승(一道一乘)이 되고, 대품에서는 이름이 반야법성이 되고, 〈유마경〉에서는 이름이 무주실제(無住實際)가 된다. 이와 같은 명칭은 모두 불성의 이명이 된다."고 적고 있다.

당시 불성에 대한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남도(南道)는 법성, 진여 등을 의지해서 불성이 본유(本有)에 가깝다고 보았고, 북도(北道)는 아뢰야식을 의지해서 무루종자가 새롭게 훈습을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성은 시유(始有)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길장은 〈대승현론(大乘玄論)〉에서 삼론종의 중도사상을 가지고 불법을 논증하면서, 당시 많은 불성론의 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대체로 11가설이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래로 서로 전해서 해석한 불성이 같지 않다. … 제1가는 중생으로서 정인불성(正因佛性)을 삼았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구비했으며, 정인(正因)은 모든 중생을 말한다. 곧 중생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2가는 육법(六法)으로 정인불성을 삼았다. 육법은 오음(五陰)과 가인(假人)을 말한다. 즉 오음과 사람을 육법이라고 한다. 곧 육법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3가는 심으로서 정인불성을 삼았다. 무릇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상보리를 얻는다. 심식은 목석무정지물과는 다르다. 갈고 닦으면 반드시 성불한다. 곧 심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4가는 명전불휴(冥傳不朽)한 것으로 정인불성을 삼는다. 이것은 앞전에 심으로서 정인을 삼는다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바로 신식(神識)에 명전불휴(冥傳不朽之性)의 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곧 이것을 써서 정인이 된다는 것이다. 제5가는 고를 피하고 낙을 구하는 것으로써 정인불성을 삼는다. 일체중생은 고를 피하고 낙을 구하는 성(性)이 있다.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여래장이 없으면, 고락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피고구락(避苦求樂)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6가는 진신(真神)으로 정인불성을 삼는다. 만약에 진신이 없으면, 진불(眞佛)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진신(真神)은 정인불성이 된다. 제7가는 아뢰야식자성청정심(阿梨耶識自性清淨心)으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8가는 당과(當果 · 當來之果)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당래에 반드시 모두 성불한다는 것이다. 제9가는 득불의 이치(得佛之理)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10가는 진제(真諦)로써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11가는 제일의공(第一義空)으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고로 경에 이르기를 불성의 이름이 제일의공이다. 고로 제일의공은 정인불성이 된다"고 했다. 여기서 길장은 제1가와 제2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다. 일체중생은 오온으로 화합되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육법으로서 정인을 삼는다는 모두 사람을 세워서 설한 것이고, 또 단지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다를 뿐 뜻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종류가 된다는 것이다. 제3가부터 제7가까지도 역시 동류로 보았다. 곧 심의 본체는 곧 불성이며, 심의 작용을 불성이라고 할 때, 모두 심을 불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 동류라는 것이다. 제8가에서 11가까지는 모두 성불의 이치에서 불성을 분석한 것이라고 해서 동류에 포함시켰다.

이와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남북조시기에는 불성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이자 토론 거리가 되었다. 이후 불성론 선종사에서 그야말로 매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선종사에 이론적 사상적으로 많은 조도 역할 및 선종의 사상을 빛내는 임무를 담당했다.

〈동국대 강사〉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대표 인사 '밍글라바' 불교경전서 유래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⑭ 불교와 미얀마 언어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국어를 잊을 일이 없다. 모국어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구사하게 된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통된 내적인 사고가 형성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언어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철저한 일본어 사용을 강조했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 민족성을 말살 당하지 않기 위해 무수히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기에 '한국의 얼' 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로마의 카톨루스 대제는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두 개의 영혼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다. 카톨루스 대제의 말을 통해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가 구성될 때는 다양한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왕의 혼자만의 힘으로만 만들어 지지 않았고, 조선시대의 문화로만 형성된 것도 아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문화들이 축적되고 융합되면서 한글 속에 포함되어 우리의 단어로 남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이었지만,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글에는 일상생활 속 단어 중 불교에서 유래한 한글단어가 많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현관(玄關) · 단도직입(單刀直入) · 대중(大衆) · 여실(如實) · 나락(那落)' · 주인공(主人公)' 과도 같은 단어가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 단어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치관이 담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불교 색이 과거보다 많이 옅어진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불교용어가 우리 삶에 자주 쓰인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황금의 나라, 불교의 나라' 라고 불리는 미얀마의 언어도 우리처럼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빨리어는 내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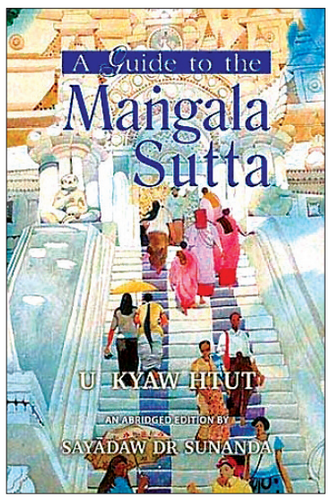
나에게는 미얀마 룸메이트 언니 2명이 있다. 미얀마 언니 한 명은 버마족이면서 불자이고, 다른 언니 한 명은 꺼인족이고 크리스찬이다. 우리 셋이 같이 쓰는 한 방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양한 경전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버마족 언니는 빨리 어로 된 경전을 암송하고, 나는 〈지장경〉을 읽고, 꺼인족 언니는 성경을 읽으며 각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

미얀마에 와서 빨리어를 배우지만, 쉽지 않았던 나에게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버마족 언니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어느 날 언니에게 박사과정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빨리어 비법을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더 충격이었다.

'난 빨리어 영어로 되어 있으면 못 읽어, 미얀마어로 적혀진 것만 읽고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어. 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늘 빨리어 경전을 읽어주셨고, 스님에게 5살 때부터 경전을 배우고 그때 외운 기억이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해' 라는 언니의 답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반야심경 외우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빨리어를 외우는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에 다시 한번 놀랐다. 미얀마 사람들은 빨리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듣고 외운 빨리어 경전은 매일 암송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을 일이 없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기독교인 꺼인족 언니가 빨리어 단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만큼 미얀마어 단어 자체가 빨리어를 차용 혹은 변형 시켜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얀마 언어는 미얀마어, 버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달리 약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소수민족은 각자의 언어가 있지만, 미얀마어는 자신이 속한 민족 언어만큼 필수로 배운다. 미얀마어는 장면어족(藏緬語族, Tibeto-Burman language group)에 속하며, 몬족(Mon)언어에서 유래했으며 글자는 브라미(Brahmi)에 기원을 두고 있다. 33개의 자음과 7개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복합문자, 독립 모음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어가 빨리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얀마 왕조의 불심(佛心)이 큰 역할을 했다.

미얀마 전역으로 상좌부 불교가 퍼지게 된 것은 바간 왕조시대 때이다. 왕들은 불가(佛家)의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그 중 빨리어 경전을 미얀마어로 역경하는 과정을 중시했다. 역경뿐만 아니라 미얀마 승가는 백성들에게 빨리어 경전과 미얀마어를 함께 가르쳤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빨리어 단어가 미얀마어로 많이 차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미얀마 문학의 첫 시작도 불교문학(佛教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미얀마 문학은 자타카(Jataka)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문학작품을 저술했고 주요 창작층도 승가가 담당했다. 이러한 영향이 19세기까지 이어져, 미얀마 문학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다른 종류의 문학이 유입되었다. 불교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속의 말 그리고 문학작품까지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의 가치관과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Maṅgala Sutta〉 미얀마 버전.

> 어릴 때부터 빨리어 경전 접해
> 항상 듣고 따라하며 삶에 습합
> 상당수 용어가 불교에서 유래
> 당황스러운 순간 말하는 '둑카!'
> 불교에서 '苦'의 의미 담겨있어



미얀마어로 적힌 경전의 모습.



미얀마 산다무니 파고다에 조성된 경전비문. 대리석판에 경구가 새겨져 있다.

'밍글라바' 인사도 경전이름서 유래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 '밍글라바(Minglaba)' 라는 인사말을 듣게 된다. '밍글라(Mingla)' 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길상경(吉祥經)〉으로 잘 알려진 〈Maṅgala Sutta〉의 Maṅgala에서 유래했다. 처음 사람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안녕' 이라는 말부터 불교경전에서 유래했다. 어느 나라나 '행복과 즐거움' 에 큰 가치를 두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일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 간의 노사분규가 존재한다. 행복이라는 말도 빨리어 'Sukha(즐거움, 행복감)' 이라는 단어를 쓴다.

미얀마 사람들은 삼독(三毒)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를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삼독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라며 30분 넘는 불교 강의를 해준 친구가 기억이 남는다. 탐욕은 'Lobha' , 화는 'Dosa' , 어리석음은 'Moha' 라는 빨리어 용어를 그대로 미얀마 말로 쓴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당황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둑카!' 라고 말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봤다. 맨 처음에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쓰는 감탄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빨리어에서 '고(苦)' 를 의미하는 단어가 미얀마어의 감탄사로 굳어진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얀마 사람들과 헤어질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는 미얀마 사람에게 '메타 뽀뻬메(Metta po pay me:자비를 보낼께요)' 라는 말을 하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는 미얀마 사람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메타(Metta:자비)라는 단어는 안 좋은 상황에서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쓰인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기사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차에 치일 뻔 했을 때 '기사님은 나에게 메타 보내겠네!' 라고 쓰인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쓰인다. '내가 새벽5시부터 팝송을 크게 틀어 놓아서 옆집 사람들이 메타(자비) 보내겠다!' 라고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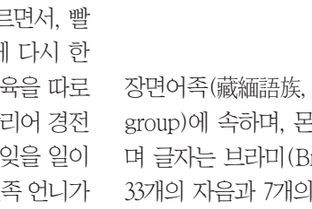
빨리어 불교 용어가 미얀마어로 차용되거나 변형되어 생활 곳곳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 불교를 믿지 않는 미얀마 사람들도 늘 사용하는 미얀마어를 통해 불교적 가치관과 정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35개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미얀마에 분단이 없는 것이 아닐까? 언어에 깃든 문화와 정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현대불교 독자 여러분에게도 "메타 뽀뻬메(Metta po pay me)!"

〈양곤대 박사과정〉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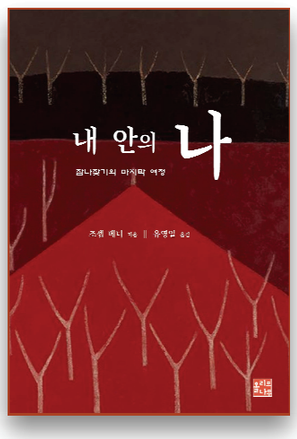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㉘ 선(禪)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그대들의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으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 그 지 · 수 · 화 · 풍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보아버린다면 바로 가고 머무르는 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산승이 보건대 꺼릴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한다면 성인이란 이름뿐인 것이니라. 선을 공부한다는 어떤 사람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다고 하지만 틀려먹은 짓이니라.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기 때문이니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은가?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고, 어디를 가도 의심할 것 없이 작용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니라.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빛이 모두 참된 보현보살이요,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서 스스로 속박을 풀어 가는 곳마다 해탈하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삼매법이니라. 문수 · 보현 · 관음 세 보살이 서로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되어 출현할 때는 한꺼번에 출현하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버리면 비로소 경전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잘 본다고 할 것이니라."

〈능엄경〉에 '반문문성(反聞聞性)'이라는 말이 있다. 25원통장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의 내용에 들어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이근(耳根)이 성진(聲塵)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소리를 듣는가? 바깥의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성품을 들으라는 말이다.

임제도 이 장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은 사대로 구성된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를 활용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한다. '반문문성'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각각 짝하는 경계가 다르지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를 맡는 것은 동일한 성품이다. 이것을 알아버리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다. 선(禪)은 주체적 자아확립이다. 밖으로 찾을 것이 전혀 없는 내면을 향한 자기탐구라고 할 수 있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 이 산에 문수보살이 머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오대산을 문수성지라 한다. 신라 때 중국에 들어간 자장율사도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하며 무착 문희(無着 文喜 · 811~900) 선사가 오대산으로 가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오대산으로 가다가 문수보살이 화현해 나타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많은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불법은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있느니라."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야."

〈벽암록〉 35칙에 소개된 이 내용은 나중에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공안(公案)이 만들어져 널리 회자 되었다.

이 외도 무착이 문수를 팥죽을 쑤던 솥에서 만나 "네 문수는 네 문수요, 내 문수는 내 문수다" 하고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는 설화도 있다.

문수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는 말까지 하여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근절시키고 일체 불보살이 자기 성품(自性)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육조단경〉의 자성삼보(自性三寶)와 자성삼학(自性三學)과 같은 뜻의 말이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서 스스로 속박을 풀어 가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보살의 삼매법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범부가 '三界苦' 벗어나는 길



세상 속 경전읽기

㉘ 구차제정(九次第定)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 곧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삼계고(三界苦)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차제정[九次第定 · 아홉 단계의 정(定)]을 닦아야 한다.

음욕(婬欲)과 식욕(食欲)을 주로하고 그 외의 욕심들로 가득 찬 욕계를 떠나 색계에 이르려면 4선(禪)을 닦아야 하고, 욕심은 없지만 정묘한 물질의 장애가 있는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에 이르려면 4무색정(無色定)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물질이 없지만 심식(心識)이 있는 무색계를 벗어나려면 멸진정[滅盡定 · 滅受想定]을 닦는다.

구차제정 중 4선 · 4무색정의 8정(定)은 정도(正道)와 외도(外道) 모두 닦지만, 멸진정은 정도인 불교에서만 닦는다. 여기서의 4선은 붓다께서 대각을 이루실 때 닦은 근본4선이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반열반에 드실 때에는 초선에서 비상비비상처정까지 4선 · 4무색정을 차례로 올라갔다가, 비상비비상처정에서 초선까지 차례로 내려와, 다시 초선에서 순차로 제4선을 거쳐 입멸하셨다.

4선 중의 초선은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라고도 하며, 곧 욕계의 이생[異生 · 번뇌에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곧 범부(凡夫)]이 지닌 욕망과 악과 불선법(不善법)을 떠나 언어가 멸(滅)하고, 각관[覺觀 · 심사(尋伺), 심(尋)은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 사(伺)는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의 사고작용[想]이 있고, 기쁨[喜]과 즐거움[樂]을 느끼는 경지에 머물며, 색계 초선천에 해당한다. 여기에 일심(一心)을 더해 5지(支)를 갖추고 있다. 초선에서 몸에는 팔촉(八觸), 곧 떨림[動觸], 가려움[癢觸], 가벼움[輕觸], 무거움[重觸], 차가움[冷觸], 뜨거움[暖觸], 껄끄러움[澁觸], 미끄러움[滑觸]의 느낌이 생긴다.

초선에서 제2선[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으로 들어가면, 각관이 쉬어지고, 내밀한 고요한 평화인 내정(內靜)과 삼매에서 얻어지는 희락과 일심의 4지를 갖춘 경지에 머물며, 색계2선천에 해당한다. 제2선에서 제3선[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으로 들어가면, 기쁨의 욕망[喜欲]을 여의고, 평등[捨]하여 구함 없이 노닐며, 정념(正念)과 정지(正智)로 몸에 묘한 즐거움[樂]을 깨닫는다. 이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성인의 평등 마음챙김[念]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다. 일심까지 5지를 갖추며, 색계 3선천에 해당한다.

제4선정[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에서는 출입식(出入息)이 적멸하고, 고락을 다 떠나고[不苦不樂] 평정[捨]과 순수한 알아차림[念]의 4지가 갖추어 있고, 색계 제4선천에 해당한다. 이어서 4무색정의 첫 번째인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에 들어간다.

"또한 여러분, 비구는 일체의 물질[色]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멸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량없는 공(空)으로 들어가 이 한량없는 공처를 성취하여 노닙니다. 이 때 그의 식(識)이 공지미[空智味 · 공지의 맛]에 집착하지 않아 그것에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그것을 인연하거나 묶이지 않으면, 그 식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후 일체의 한량없는 공처를 넘어 한량없는 식으로 들어가고 이 한량없는 식처를 성취하여 노닌다[識無邊處定]. 그 후 일체의 한량없는 식처를 벗어나 무소유로 들어가고 이 무소유처(無所有處)를 성취하여 노닌다[無所有處定].

"비구는 일체의 무소유처를 넘어 비유상비무상으로 들어가고 이 비유상비무상처를 성취하여 노닙니다. 이 때 그의 식이 무상의 지혜[無想智]의 맛에 집착하지 않아 그것에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그것을 인연하거나 묶이지 않으면 그 식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 비상비비상처의 차원을 초월해서 생각과 감수(感受)가 없는 선정[想受滅定]에 들어가 머문다. 그리고 이해를 통한 통찰을 얻으면 번뇌가 사라진 구차제정의 성취에 들고 또 그로부터 벗어났을 때, 최고의 통찰[지혜]을 얻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것[최고의 지혜]은 어떤 신이나 인간도 능가할 자가 없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㉔ 닦음의 길 14

사무량심, 이웃을 내 몸처럼

〈四無量心〉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모두 이렇게만 산다면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마찰과 분란, 갈등, 대립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여러 종교에서 이기심의 소멸을 강조하는 것도 그럴 때 비로소 상대의 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값진 선물이다.

불교의 수행 역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체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상대도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인간은 '같은 마음(如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필요하다. 사무량심(四無量心) 또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행이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열반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행이다. 붓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해서 대자(大慈), 대비(大悲), 대희(大喜), 대사(大捨)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비희사(慈悲喜捨)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처럼 번뇌 가득한 세속에서 살면서도 여기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무량심의 첫째는 자무량심(慈無量心), 즉 무한한 자애심을 가지고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실천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사랑하는(慈) 마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와 내가 '하나'라는 자각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어머니가 아들을 한 몸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

둘째는 비무량심(悲無量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예컨대 벗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도 비(悲)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처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도 상대와 '하나'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이것은 자무량심과는 달리 이기심이 남아있더라도 어느 정도 실천할 수는 있다. 그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불행에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셋째는 희무량심(喜無量心), 즉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수행이다. 이는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들이 승진했다고 자랑한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는가.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까지 그러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자랑은 상대가 기뻐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가 자랑하면 함께 기뻐하기 힘든 법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실천은 자신의 이기심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

마지막 사무량심(捨無量心)은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수행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는 친소, 애증의 관계에 따라 상대를 차별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모두 텅 비우고(空)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사무량심은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실천이다. 혹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족의 슬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함께 울고 아파했던 것이다. 수행은 그러한 공감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일이다. 사무량심은 모두가 '하나'라는 연기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확립한 수행체계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정정공고

• 사 찰 명 : 서봉사
• 재산관리인 : 명 음 (성명 : 성지현)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34(이천동 439-2)

현대불교신문 2020년 7월 8일자 14면 '탈종 공고' 및 동년 7월 15일자 14면 '바로잡습니다'는 위 본인이 종무행정 숙지 및 업무가 미흡하여 착오로 공고한 사항으로 위 2건의 공고 내용을 전면 취소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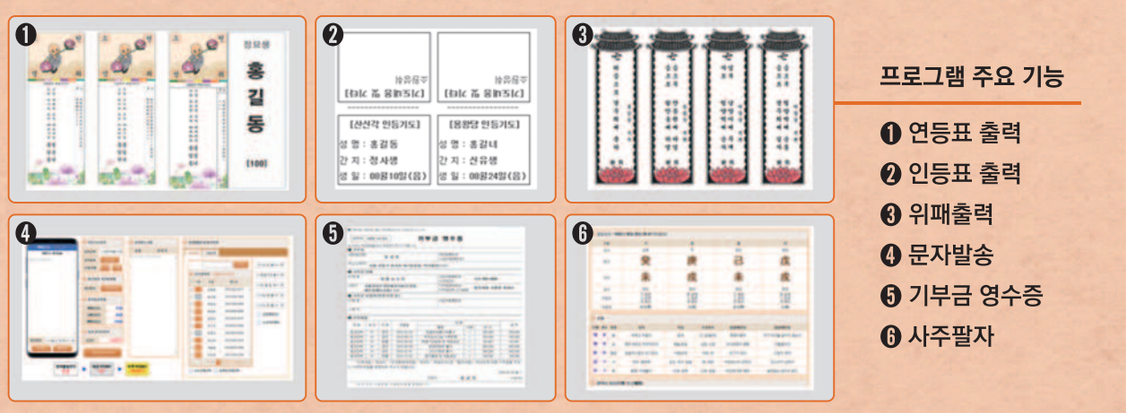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마하시 수행 시작 '배 움직임' 관조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3〉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



불교수행의 대명사, 마하시 위빠사나

위빠사나라고 하면 마하시를 떠올릴 만큼 마하시 위빠사나는 위빠사나 수행의 대명사이다. 학승이자 수행승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마하시 사야도의 역량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마하시 수행법은 오랜 전통의 불교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행법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청정도론〉을 기준으로 기존의 상좌부 수행전통을 고수하고자 노력했으며, 분리와 분석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활용하여 몸을 시작으로 마음까지 관찰하고자 만들어진 수행법이다.

마하시 위빠사나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과 직면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수행의 시작에서 명칭을 붙여서 주시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초보자의 집중을 돕기 위해 사마타적 요소를 가져온 마하시 사야도의 배려로 보인다. 간혹 배를 보는 수행이라 제한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수행법을 이해하지 못한 평가로 보인다. 마하시 사야도의 뛰어난 역량과 불교문화부흥운동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함께 어울려 불교수행문화의 꽃을 피운 수행법이라 볼 수 있다.

미얀마 수도 양곤에 위치한 마하시 수행센터는 세계적인 위빠사나 수행처이다. 1997년 필자가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행자가 찾는 상좌부불교수행의 메카이다. 현지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행자들로 수행의 열기를 느낄 수 있으며, 불교수행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하시 수행센터는 마하시 사야도를 초대법사로 모시고 '붓다 사사나 녹가하 협회(BSNO)'와 정부의 지원에 의해 1950년 설립됐다. 2만 5천여 평의 대지 위에 수행홀, 식당, 숙소, 법당, 기념관 등 100여 채의 다양한 건물이 있어 3000여 명의 수행자들이 머무를 수 있다. 한번은 미얀마의 설날인 띤잔 기간에 마하시 수행센터에 방문했는데, 40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입실해 센터는 온통 수행자들로 가득했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센터는 수행자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집중 수행을 위해 센터에 머물 경우, 숙소 뿐만 아니라 식사,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행자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행지도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첨단시설을 늘리고 있다. 올해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대형 강당에 시청각실과 강의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마하시 위빠사나의 특징과 체제

마하시 위빠사나의 수행법은 크게 앉아서 하는 좌선과 걸으면서 하는 행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좌선은 호흡을 통한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행선은 걸으며 느껴지는 발목 아래의 느낌을 중심으로 시작하며, 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관찰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수행법이 수행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행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좌선이 9시간, 행선이 7시간으로 통틀어 16시간 정도를 수행에 매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의 수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행자에게는 어느 특정의 자세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구부리고 대소변을 보고 빨래를 하거나 씻는 등 모든 몸과 마음의 작용이 주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수행홀에서 이뤄지는 정해진 수행 시간 뿐만 아니라 개인처소에 돌아와 쉬는 시간에도 주시를 놓쳐서는 안된다. 수행센터에 있는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은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수행일정, 수행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그룹 수행, 수행 후 이어지는 지도자와의 인터뷰, 수행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야도의 법문 등 잘 짜인 프로그램은 수행자들의 수행을 돕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마하시 위빠사나의 기본수행법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앉아서 하는 수행(좌선), 걸으면서 하는 수행(행선), 서서하는 수행(주선), 누워서하는 수행(와선) 그리고 모든 동작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생활선)이다. 수행자는 앉아서 하는 수행과 걸으며 하는 수행을 주로 하고, 서서 하는 수행과 누워서 하는 수행은 보조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발된 수행의 힘을 일상생활에 까지 확장시킨다. 그렇다면 이들 수행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호흡 통한 배의 관찰 기본
걸으며 발목 아래 집중을
편안한 자세 · 호흡이 중요

앉아서 하는 수행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위빠사나 역시 앉아서 하는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앉아서 하는 수행의 핵심은 호흡을 통해 움직이는 배의 느낌을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다. 배의 움직임이라는 현상과 움직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앉아서 하는 수행의 기본이다.

수행처 안에서 앉아서 하는 수행은 1회 1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1시간을 앉아 있으려면 최대한 몸의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앉아서 하는 수행의 시작은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자세가 불편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몸이 긴장되면 마음 역시 긴장되어 수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초보 수행자의 경우 앉는 방법, 손의 위치, 앉는 자세, 얼굴과 턱의 위치가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가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익히는 것이 좋다.

좌선 자세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을 살펴보면 호흡에 의하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간다. 호흡을 통해 움직이는 배의 느낌을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앉아서 하는 수행의 핵심이다.

수행자는 배가 나올 때 '일어남'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이라고 마음 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간혹 좌선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려는 수행자가 있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 시간 동안 좌선을 하는데, 몇 분 더 빨리 시작한다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하려는 욕심에 수행이 힘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좌선이 시작되면 몸이 긴장되지 않았는지,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은지 살피며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킨다. 그런 다음 배의 움직임으로 마음을 보내도 늦지 않다.

만약 배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손바닥을 배에 가볍게 대고 주시한다. 그러면 호흡의 드나듦에 따라 오르내리는 배의 움직임이 손바닥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될 것이다. 어느정도 배의 움직임이 명확해지면 손은 다시 원위치에 놓는다.

이 때 수행자가 배의 움직임을 분명히 느끼기 위해 힘을 주거나 호흡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너무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혹은 너무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온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러움 등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쉽게 피곤해 질 수 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해서 단전 호흡이나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숨이 쉬어지는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배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주시를 잠시 멈추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손을 배에 갖다 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인해 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시 주시를 가동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수행자는 움직임의 실제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배의 움직임이라는 현상과 움직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앉아서 하는 수행의 기본이다.

주시와 주시의 대상

어떤 수행자는 배보다 코를 통해 호흡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코를 통해 들숨과 날숨을 주시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다. 이는 수행자의 집중력을 발전시키고 고요함을 이루는 데 뛰어난 방법이다. 하지만 본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느낌을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코의 영역보다는 배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코를 통해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이 익숙한 사람은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머지않아 몸의 부위에 상관없이 기존에 발전시킨 집중력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만약 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코 주변을 통해 얻은 집중력으로 배의 움직임을 본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코를 통한 집중으로 몸이 고요해지면 주시의 대상을 배로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수행의 시작에서 코냐 배냐는 민감한 위치지만 결국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와 집중의 힘이다.

호흡을 통한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은 마하시만의 독특한 방법이다. 마하시는 이 좌선의 기본자리를 호흡 자체보다는 사대의 관찰 중에 풍대에 주시하는 방법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풍대는 움직임과 힘을 의미한다. 수행자는 호흡으로 배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풍대에는 상승하는 바람과 하강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호흡도 풍대의 일부이기에 결국 마하시의 기본자리는 입출식념과 사대 수행의 복합적 위치라고 볼 수 있다. 배라고 하는 위치는 독특하나 풍대는 불교수행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수행처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방법은 새로운 위빠사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호라지좃(天門冬)과 회화實의 관한 보고서

이 나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를 위해 애쓰시는 스님들과 법사님, 보살님들!
그리고 "한소식" 만을 위해 토굴에서 정진하시는 이판, 사판 스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드리는 말씀은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고 정자까지 좋았던 이나라 금수강산에 소리없는 암살자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황사, 미세먼지, 변종바이러스, 배기가스, 온실가스, 매연, 생활공해, 흡연, 초그을음, 향연기)등이 우리 인체에 살며시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인들의 방어전략은 갖춰져 있는가?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대책과 척살대책은 무엇인가?
환경이 우리에게 병을 줬다면 반드시 치료되는 명약도 준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다!
하여! 이런 암살자들에게 막강한 타격을 주는 신무기가 개발되었다.
개발자 林大業은 20년간 엄청난 좌절과 실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연구개발하여 지구상에서 창궐하는 각종 바이러스, 폐질환,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 효과를 간직한 "천문동"과 "회화열매"에 함유된 치유물질과 놀라운 "필" 성분을 발견하여 2019年 제품화 하는데 성공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실험을 거쳐 인증을 받은 후 국내최초로 丸을 제조하여 첫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천문동+회화열매의 성분, 효능, 효과는 지면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 H.P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생략하며, 인체 내 호흡기 질환, 폐질환,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 갑상선, 성대보호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신하며,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희망자 선착순 100명에게 체험확인을 드리고자 10日분 50g을 무료배송해 드릴것이니 직접 주문하시고 전화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시원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섭취후 선택과 판단은 그때 하십시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호산헬시코리아 대표 林大業 배상



천문동(天門冬)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TEL. 031-912-7112 HP. 010-2255-1358(직)
※고객님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7159-5737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2호 | 15 | 전면광고

모든 죄의 업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앉아
합장하고 일심으로 내 이름을 염불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명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기도도량(참나선원)

경남최고의 명산에서
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
인연을 찾습니다.
결혼하실 남 여 인연을
맺어줍니다
절(기도터) 파실분, 구하실분
(급)매도합니다
010-3257-5182

입종 동참안내

*****
부처님의정원·사암·포교원
선원·불교문화원·종단
단체·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대중스님 후원봉사하실
신도님 기다립니다.
010-3928-7083
055-382-7083

부전(노전)스님 모십니다
제의식 능통하신 스님
보시금 상담후 결정.
이력서지참
경북문경 쌍룡사
010-8819-8988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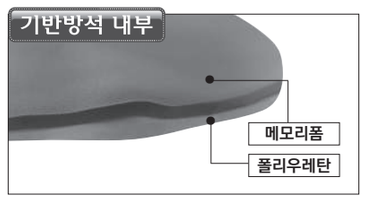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2호 | 16 | 전면광고

게으르면 비겁하고 나약해지니 태어나고 죽는 것 참지도 못하고 고뇌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 세상에도 또한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정법염처경》에서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0-3162-3376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교원안내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법당, 요사, 접견실, 나한전, 차고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1300년 고목,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사찰안내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영. 최고 위치좋음.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앉아만 있어도 돈들어오는 최고요지.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010-4137-1328

사찰안내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주차장 확보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010-9011-7230

사찰·기도(터) 안내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남밀양IC 10분거리 초동
●토지 1136평 관리지역
●가액: 1억5천(은1억4천 포함)

010-9906-3631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대형사찰 급매

●위치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 5분거리
●총면적 : 20,496㎡
●가액 : 15억(대출금5억포함),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 (창원의창, 내곡지구 경계 평당상승, 평당만 20억 상당)
●5억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분할납부)
●10,000㎡ : 대형 대웅전 최신 단청완료 문화재급 단청 원목시공
●사찰불상 최고급, 탑, 모든 종교시설 일체
●10,496㎡ : 납골당및 전원주택 일부 개발
●사회복지원및 타 용도 일부 가능함
●사찰앞 토지까지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중

010-9647-0723

사찰안내

●위치 : 부산 연제구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대지 100평. 법당 25평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좋은사찰안내

●위치 : 서울도심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가액 : 25억 (대출가능)
●별채빼고 양도가능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150-2284

아주오래된 전통암자 안내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종교용지, 등기 900평(1천평 사용)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신도있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암자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합니다.
●1억 5천 안고 3억 3천
●합 4억 8천(절충가능)

010-3535-7906

토굴안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찰안내

●문화재사찰
●위치: 부산 최고의 바다전망
●대지500평, 임야3600평
●법당 산신각 천불전 요사체
●가액 23억
●스님건강상 매도

010-2104-2040

포교원안내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171번지 버스종점 옆
●스님의 50년된 암자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010-5399-1225

포교원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역세권 (도로인접 2층)
●평수 : 50평, 도시가스 (접근성 양호)
●재래시장 인근,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042-4245

사찰안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포교원안내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금 약간

010-2074-6825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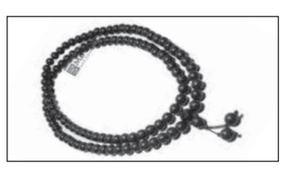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어차피 한 번 죽을건데 뭐 죽고 사는걸 그렇게 겁내라

몸과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질문 한 철 목숨 걸고 공부해서 자유인이 돼 보자고 다짐했건만 천방지축 날뛰는 제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관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날뛰는 몸과 마음을 잘 길들이고 싶은데 좀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옛날에는 자기를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소나 코끼리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방편을 썼는데,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직결되게끔 방편을 썼습니다. 그 방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첫째, 자갈을 물어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 소리죠. 셋째, 길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라." 이겁니다.

"자갈을 물어라."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자갈을 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으로 모든 걸 굴려 놔라." 이게 자갈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저 해 버릴 말을 하고 이러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안으로 굴려 놓지 않는다면 자기를 맛볼 수 없으니까요.

둘째는 "모든 것을 밥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공식을 구하라, 안으로. 안으로 공식을 구하지 바깥으로 탐욕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걸 말을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아마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 이 공식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탐욕이나 뭐, 취하는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런 게 생기면은 거기다 놓고 다 몰락 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셋째는 예전엔 소로 비유를 했고 코끼리로 비유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현상세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길을 올바로 들지 못해서 남의 밭에 농사지어 놓은 거를 짓다진다면 그 얼마나 타인이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런고로 자기도 손해가 나는 일이죠, 모두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을 쓰되 "몽둥이로 때려 줘라. 두들겨 패라." 이랬습니다. 야생마처럼, 야생 소처럼 그렇게 날뛰는 거를 두들겨 패라 이랬습니다. 올바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리드해 나가고 자신을 모두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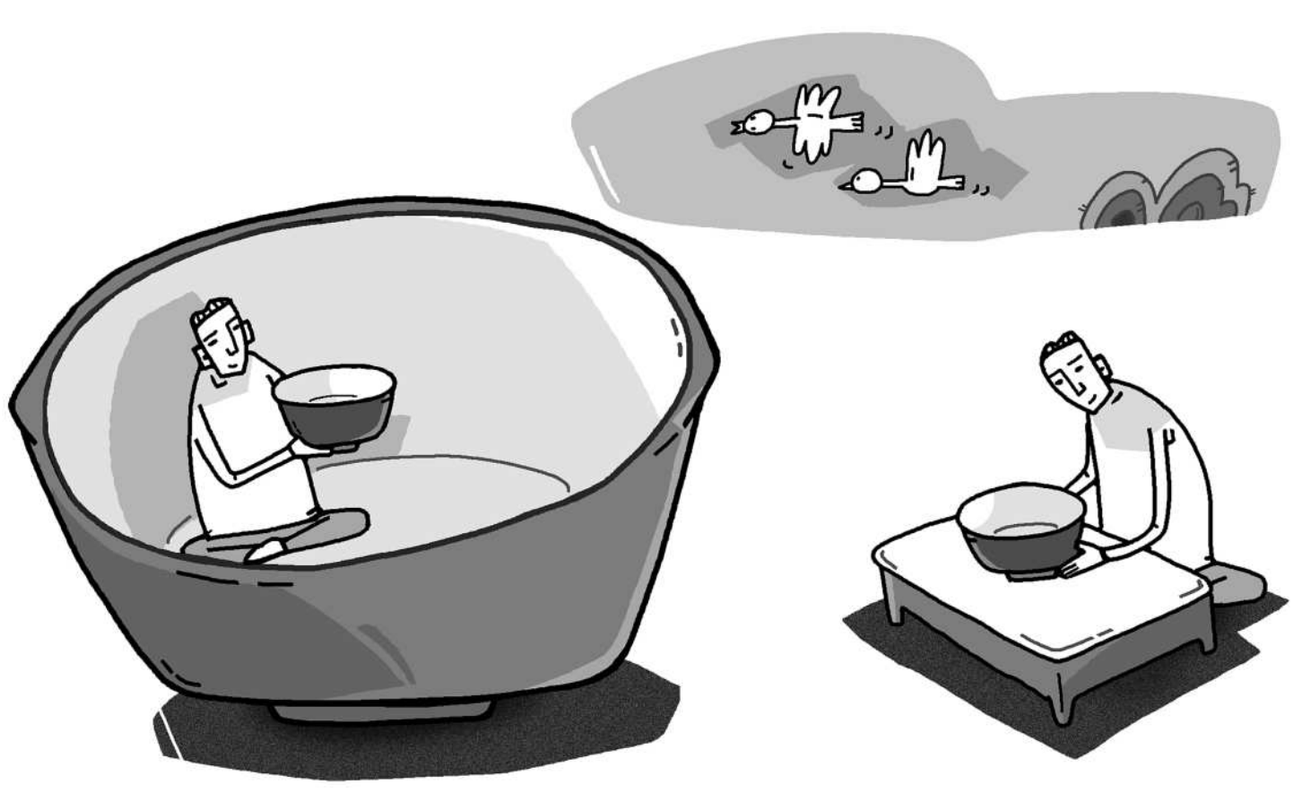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유할 때 말입니다, 옛날에 눈먼 거북이, 귀먹은 거북이가 쏜살같이 내리는 물속에서 고개를 들고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구경을 하지 못한 채 항상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한 세상에 나와서 하늘 구경도 못 하고 이거는 항상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을 휘젓고 빠져 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산대서야 이거,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하고 거북이가 한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수십 번을 진화돼서 거북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고생 안 해 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뜻도 되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죽어도 고만 살아도 고만. 이런 생명을 살아 뭘 하나. 하늘도 구경 못 하고 허우적거리고 물속에서 항상 이렇게 헤매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잡아먹히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생명이 살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그냥 그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속에서 그냥 튀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튀어 올라오는 그 시각에 바로 뗏목이 떠내려가다가 탁 마주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도 그런 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거기다 굴려 놓고 그냥 또 거기다가 '너만이 할 수 있어.', '감사해.' 하고 두 가지로 항상 굴리다가 어느 때에는 뜬금없이 뗏목을 만난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뜬금없이 자기 그 불성 기둥이 불쑥 솟는다 이런 뜻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하늘을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래 어쩌다가 탁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펄떡 나오는 반면에 그 뗏목이 아다리가 돼서 거기 올라서서 여유 있게 구경을 했더랍니다.

몰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눈뜨고 귀 뜬 사람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겠지마는 눈멀고 귀 먼 사람들은 살기가 여유가 없습니다. 눈먼 거북이나 똑같죠. 허우적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지금 살 거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건너지도 못할 걸 건너려고 앨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유를 할 때에 그 소를, 두 번째 가선 "먹이지 마라. 굶겨라. 안으로 공식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가 부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계의 자기를 자기가 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끼리를 길들이고 다스리고 하는 데는 뭔 일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대왕을 올바로 모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을, 일체 만물을 다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들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자신이 자기를 길을 안 들이면 누가 길을 들이며, 자기 자신을 리드 안 하면 누가 리드하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익하게 하고 계발시키고 정신계의 후원이 돼서 모든 것이….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길 했죠. 비가 안 온다 온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를 알게 한 게 아니라, 죽는 거 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자작, 자유스럽게 자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병이 낫는다 말하고 안 낫는다 말하고를 떠나서, 병뿐이 아니라 일체 삶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가 자유자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마르면 물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둥지가 떠내려갈 거를 알고서 미리 아주 철통같이 하는데 왜 사람은 자기가 떠내려갈 걸 모르고 사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요거는 요거다 조거는 조거다,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말 불기둥의 위력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우린 생명이 불이라고 그랬죠. 불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신앙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성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뭐가, 그런 걸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무뜩 생각이 나면은 '아, 이거….' 그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든 지각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감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모면하고 가죠.

"자기가 자기를 자갈을 물려라." 이랬다고 그래서, 자갈 아닌 자갈을 물렸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갈을 물려 놓고 스스로서 그 자갈은 없어져도, 자갈이 다 스스로 없어져도 그냥 자갈 낀 거와 같이 항상 하고 간단 말입니다.

전선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다른 걸 못 본다면 그걸 좀 보세요. 전선 줄이 말입니다, 줄이 불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죠. 줄 속에 선이 불을 들어오게 하죠. 그 전선 줄의 속에서 불이 들어오게 하지 겉에서 불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겉의 그 감아 놓은 전선 줄이 없어도 아니 되고 속의 알맹이가 없어도 아니 되죠. 그러니까 양면이 다 둘이 아니죠.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 18면으로 계속



‘무조건’ 주는 것이 보살의 행이요 부처님 가르침이다

☞ 17면에서 계속

그렇듯이 사람도 자기 주인공이 없어도 아니 되고 자기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된다. 우리 육신은 전선 줄의 껍데기와 같은 거니까 안에 보존하고 있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그 보존하고 있는 전선 줄만이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모두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모두, 일체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그 알맹이를 믿지 못한다면 껍데기는 항상 바깥으로 컴컴하다고 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안의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선뜻 넘어서지 못하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뭐 죽고 사는 걸 그렇게 겁내랴.’ 그러고 아무 데라도 뛰어들어 봤던 거예요. 죽고 사는 걸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려면

질문 큰스님께서는 일체가 둘 아닌 도리를 늘 말씀하시는데 막연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었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모두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어떻게 둘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째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전깃줄 얘기를 가끔 하죠. 전기,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다 이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면의 전깃줄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이거를 주고받을 때, 이걸 줄 때에, 이걸 받을 때 한순간은 이게 같이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이어지니깐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전에 말했듯. 머슴으로 사는데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니니까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머슴은. 주인이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듣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그 한 찰나 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모두 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라는 것만 말로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째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순간 전깃줄에 닿는 거와 같단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생각에 그냥 그저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단 말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은 시자로 쓰고 자기 정신은 부처로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첫째, 자갈을 물어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셋째, 채찍질을 해라.

그래서 항상 스스로서 ‘둘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실천을 하시는 데에 그게 묘미가 있다.

실천을 하시는 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래 잠재해 있다면 그냥 해도 그게 둘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고 우리가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그게 둘 아니게 그냥 실천이 됐다는 얘기죠.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이 되게끔,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줘도 상대방이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져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죄의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저로 인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참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전자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거 나는 어떡하나.’ 이러지 마세요. 죄가 있든 없든 다 불태워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도 놓고 선도 놓고 긴 것도 놓고 짧은 것도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솟아 나온다. 자기 참자기가 솟아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여여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여여하게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

무조건 주는 것이 보살의 행이요, 무조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너는 잘했으니깐, 너는 못했으니깐’ 이 이유를 따지는 게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너는 참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 이렇게 말들 하죠.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는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죠. 평등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 하면 못하는 게 있으니깐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없다 이겁니다. 있다, 없다가 없다. 법정에서나 있다, 없다를 논의하지 이 부처님 법에서는 그냥 둥글게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씀씀이를 쓰는 데에 너그럽고 지혜롭게, 의리와 도리를 가지고,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도 자비…. 아니, 그건 모두가 이름이니까요. 이름 없는 그 진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이 없이는 진짜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나부터 죽어야 모두가 둘 아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있다고 자부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공이다 하는 거. 이것은 항상 고정됨이 없다. 고정됨이 없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다. 발자국을 떼어 놓아도 떼어 놓은 사이가 없다.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차피 지은 거 그냥 놓아라. 그것은 껍데기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알맹이가 전자부터 한 거니까 알맹이가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집이, 시자라고 하는 이 집이 왜 상관을 합니까? 일일이 왜 상관을 해요? 울고 찌고 바깥으로 헤매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말을 해도 항상 이 사람하고 말을 했다가 그거 무심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가잖아요. 무심코 놓고 그냥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이 없이 하는데도 이거는 있다고 우기거든요, 마음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왔으면 “어서 와!” 하고 말을 해 놓고 그러곤 갔어요, 얘기하고. 갔으면 그뿐이지, 그냥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람처럼 달아나갔어요. 또 왔어요. 또 만나고 또 보고 또 듣고, 남편 만나고 자식 만나고, 부인 만나고 자식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이래도 그냥 만났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거기서 뒤에 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 놓고 그냥 하면 함이 없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죄나 이런 것도 다 없다 이겁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그대로 삶을 정말 통탈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자동적인 컴퓨터 얘길 만날 했죠. 거기에 과거에 입력된 것이, 자꾸자꾸 현실에 자꾸 놓으니까 입력이 되는 대로 과거에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진다. 그게 팔자 운명, 모두 자기가 지어 놓은 것들, 나쁜 거 이런 것이 모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급하게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가 한번 관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금방 이렇게 저거 한 건 관하면 금방 그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늦게 된다,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할 탓이니까. 자기 지혜에 달려 있고 요량에 달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냥 자기가 현실에 사는 것처럼 산다고 그냥 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대로 공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공식하고 있고요. 경전에서는 원식이라고 합디다만 그냥 공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으니까 말이에요. 먹는 것만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걸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공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든지 대치를 하고 어떤 거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대치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치할 수 있고, 모든 걸 자기가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이름은 믿고 딴 형상을 믿으면서 진짜 자기를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서 나온 장본인을 못 믿는단 말입니까. 진짜 장본인을. 진짜 장본인의 그 움죽거리지 않는 주장자를 싸고 있는 자기 영혼이 없으면, 불성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자기 영혼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영혼을 구제를 해야, 영혼이 구제를 받아야…. 구제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자꾸 해야 영혼과 불성과 둘이 아니게 되면서 이게 그냥 함락이 되는 거예요. 즉 우주가 함락이 되는 것과 같아요.

벌써 일 초 전도 과거예요. 몇천 년 전만 과거가 아니라 일 초 전도 과거예요. 그러니 ‘내가 했다.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어. 죄를 많이 지었어.’ 이럴 것도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떡하면 잘 살까.’ 이런 걱정 할 필요도 없어요. 단,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원만히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길이 트이고, 저절로.

불편한 사람은 피하게 되는데

질문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면서 에너지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살짝 피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그런 사람들도 바로 부딪치면서 가야 되겠지요?

답변 그게 자기 자신이 없다면 모두가 없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도,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만나서 내가 좋게 해 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언짢은 게 아닙니다.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도 공식으로서 그냥 넣으세요. 공용으로 그냥 넣으세요, 둘 아니게. 넣으시고선 속으로 그냥 관하시고선 좋게 말하고 그냥 좋게, 그 상대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말해 주고 끝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피하실 것이 없죠.

그런다면 언제 어느 천 년에 이 세상에,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체도, 이 산사의 목신도, 또 땅의 지신도, 또 물의 수신, 즉 용신도,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인연을 지으세요, 좋은 인연으로써. 그럼 아주 간편하게 사시게 되실 겁니다. 항상 무겁지 않게 사세요.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습관적인 삶, 의도적인 삶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전에 먹고 씻고 자고 깨달음 후에 먹고 씻고 잡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내면의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살 것인가요? 의도적으로 살 것인가요? 습관적인 삶은 알아차림이 없는 삶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삶입니다. 복잡하고 갈등이 많아요.

의도적인 삶 즉 수행의 삶은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깨어있겠다,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사는 삶입니다. 의도를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안 켜는 것과 같아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하루 하루의 일들에 습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아니면 깨어있음과 자비심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하더라도 의도가 힘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요? 무심코 생각을 하루 종일 굴리고 생각에 지배받고 살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있음' 으로 향한 마음으로 하루를 수행으로 삼아 보시겠어요? 의도의 힘을 키우고 작게나마 알아차림과 자비심을 실천하세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⑭ 수미산 순례– 시가체서 다르첸까지

카일라스, 내 영원한 사랑이여!

샤카사서 천축구법승 추모재 봉행
절 지붕 위 악기 소리 진한 여운
천신만고 끝에 선 카일라스 '감동'

시가체의 상징이자 판첸라마가 주석하는 타쉴룬포 사원을 참배하며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타쉴룬포 사원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주인 없이 박제된 느낌이다. 언제나 옛 영화를 되찾아 빛과 희망으로 되살아날지 모르겠다. 그날이 오면 초모랑마가 춤을 추고 알룽창포 강물 또한 힘차게 울부짖으며 노래하리라!

시가체를 떠나 샤카사(薩迦寺)로 가는 버스안에서 예불과 반야심경, 그리고 축원을 올렸다. 아울러 이번 순례의 마음을 다지는 발원문을 봉독하였다. 비록 사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곳인들 법당이 아니겠는가 싶다.

샤카사는 샤카파의 성소로 몽골제국 시기에는 쿠빌라이의 왕사로 책봉되어 더욱 번창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우리에게는 충선왕이 이곳까지 유폐된 적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저 티베트 설산을 넘어 망명하던 어떤 이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동안 티베트 절에서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지라, 샤카사에서 천축구법승을 추모하는 추모재를 가졌다. 추모재 후에 위패를 불사르며 선사(先師) 스님들의 구도열과 위법망구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서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샤카사 지붕 위로 애잔한 악기소리가 널리 울려퍼지면서 진한 마음의 여운을 남긴다.

샤카를 지나 사가와 파양을 지나며 이틀에 거쳐 티베트고원을 가로질러 카일라스 수미산이 있는 다르첸까지 험난한 여정이 이어진다. 해발 4000~5000m에 이르는 험난한 코스로 설산과 함께 맑은 호수와 험준한 고개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어느 고갯마루에 잠시 내려 둘러본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초록의 들판과 청록색의 호수, 그리고 오색의 타르쵸와 지천으로 피어난 들꽃으로 인해 마치 화장찰해를 방불케 한다. 여기 이 허접한 꽃들의 축제는 그야말로 화엄세상이다. 그 위로 스님들이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증명한다.

드디어 천상낙원이라는 아리(阿里) 지역에 들어선다. 이곳은 '아리랑(阿里狼)' 이라는 자생 여우로 유명한데, 내겐 우리 민요인 아리랑이 이곳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본시 강원도 사람인지라 정한을 담아 아리랑 한 소절을 흥얼거려 본다. 그러다가 우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나사로바(瑪旁雍措) 호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새벽 3시 경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만난 카일라스 북면. 새벽별 아래 순백의 카일라스는 장중했다.

저 멀리 순백의 나미모나니산이 장엄하게 자리하고, 그 품에 성호(聖湖) 마나사로바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아, 드디어 마야왕비께서 목욕후 태몽을 꾸었다는 그 성스런 마나사로바 호수에 왔노라. 어찌 환희스럽고 찬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다만 경외와 존중의 한 마음으로 오체투지의 예를 드려본다.

호수 입구에서 기념품을 파는 티베트 아낙네의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인 채로 고개를 내밀며 빙그레 미소 짓는다.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에서 또 다른 마나사로바 호수와 같은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마주한다. 아니 태양과 달과 별빛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 하다. 그 검은 눈동자속에는 영원의 빛이 함께한다.

드디어 우리는 우주의 중심인 성산(聖山) 카일라스 입구의 다르첸 마을(4,650m)에 다다랐다. 그러나 수미산은 구름에 가리운 채 좀처럼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어찌 그리 쉽게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련만, 아쉽고 애타는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오직 보여주십사 기도하며 서원을 할 따름이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 여장을 꾸려 출발지로 향했다. 그런데 도착함과 동시에 수미산이 제 스스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는다. 카일라스의 그 웅혼하고 신비스런 자태에 넋이 나간 채, 다만 행복의 충격과 황홀한 감격에 겨워 눈물로 수희찬탄할 따름이다.

이곳에서 카일라스 코라 순례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가졌다. 예불과 반야심경을 합송하고 일진 스님이 발원문을 봉독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빙 둘러앉아 잠시 입정의 시간을 가졌다. 우주의 중심인 히말라야 카일라스의 허공과 구름 그리고 바람이 침묵한 채, 우리와 더불어 하나되는 느낌이다.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음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다. 방선 후 지도법사 영진 스님의 법문은 마치 수미산이 직접 설법을 하는 듯, 모두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과 희열로 함께한다. 아니 내 안에 수미산이 들어와 어느새 자리하는 듯 하다.

이제 카일라스 코라 순례의 첫 발을 내딛는다. 코라길은 총 52Km로 다르첸에서 시작해 5,640m의 돌마라 패스를 넘는 여정으로 2박 3일이 소요된다. 첫째 날은 다라푹 사원(5,210m)까지 12Km를 걸어야 한다. 작은 티베트식 불탑의 종을 울리면서 코라 순례 길은 시작된다. 서쪽면의 카일라스를 오른쪽에 두고 거대한 협곡사이로 난 완만한 오르막길을 걷는다. 오체투지로 순례를 하는 티베트인들의 간절한 신심과 원력에, 그 환한 미소에 감동과 환희가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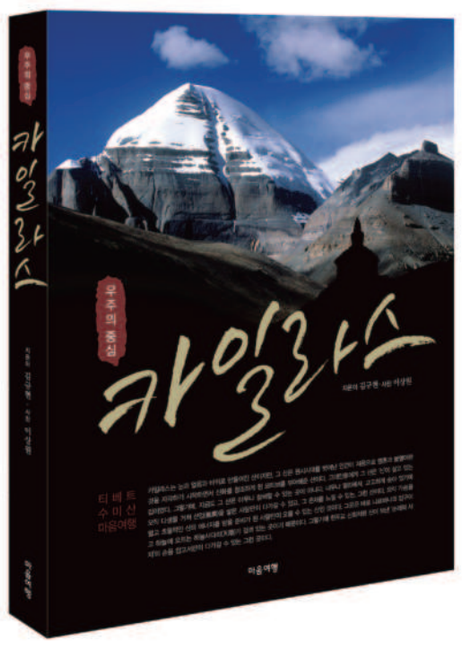
순례길에 만난 '마못' 이란 다람쥐를 닮은 앙증맞은 모습에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고, '창' 이라는 동물의 뜀박질 모습에 감동하곤 한다. 절벽 위 작은 사원은 한번쯤은 목숨 걸고 정진하고픈 마음을 절로 일으킨다. 부처님처럼 맨발로 수미산 대지를 걷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뒷모습은 그림 같고 자못 감동적이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목적지인 다라푹 사원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카일라스 북면이 그 웅장한 자태와 위엄을 뽐내며 우리 일행을 맞아준다. 마치 "잘 했네, 정말 수고했어"라며 그 너른 가슴에 안아주는 느낌이다. 다라푹 사원 근처의 새로 지은 롯지에 여장을 풀고, 뒷편 전망대에 올라 장엄한 카일라스의 북면과 마주한다. 불현듯 두 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카일라스 북면의 장엄하고 신령스런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 마침내 하나가 되는 느낌이다. 그렇게 내 안에 자리한 카일라스는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더불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 카일라스여! 내 영원한 사랑이여!

〈조계종 교육부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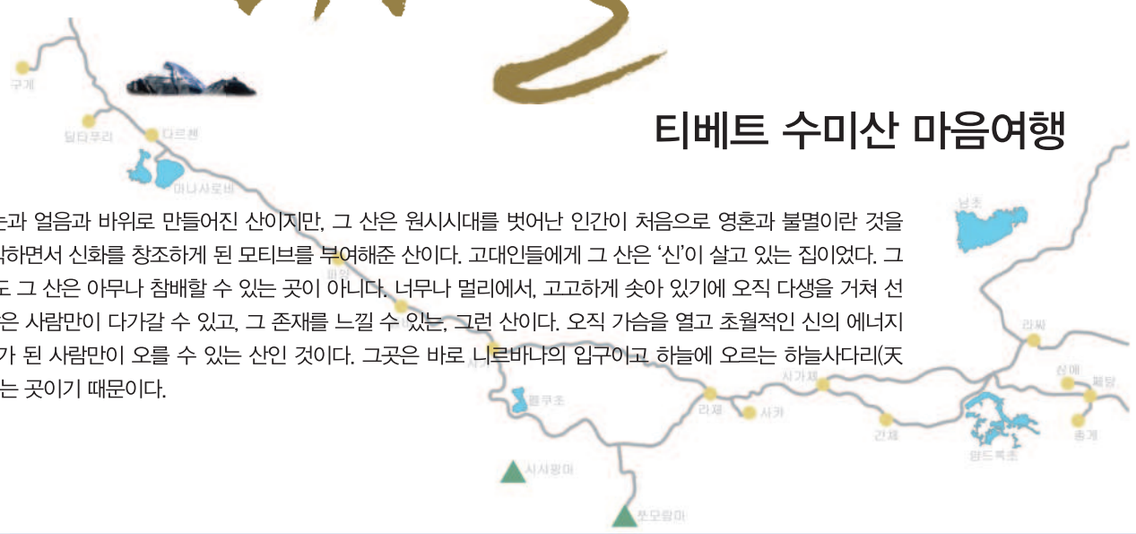


태곳적부터 불어온 설역고원의 바람은
오늘도 언제나처럼 그곳을 휘감아 돈다.
그 바람에 중독된 지도 벌써 4반세기
그곳의 푸른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것이
그 바람에 응답하는 길이리라.
나의 바람이, 또 그들의 바람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지은이 김규현 · 사진 이상원
크라운판 / 304쪽 컬러 / 값 25,000원

● 마음여행 실크로드에서 나올 책
티베트 역사문화 산책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티베트 수미산 마음여행



카일라스는 눈과 얼음과 바위로 만들어진 산이지만, 그 산은 원시시대를 벗어난 인간이 처음으로 영혼과 불멸이란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산이다. 고대인들에게 그 산은 '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산은 아무나 참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너무나 멀리에서, 고고하게 솟아 있기에 오직 다생을 거쳐 선업(善業)을 쌓은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오직 가슴을 열고 초월적인 신의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산인 것이다. 그곳은 바로 니르바나의 입구이고 하늘에 오르는 하늘사다리(天階)가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 전화 02-720-9600, 팩스 02-734-9937, E-mail : maum1989@naver.com, 홈페이지 www.maumtour.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901호,



위빠사나에 기반한
통합수용치료 기법!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라

위빠사나 명상의 핵심 수행 원리인
'알아차림과 평정심'을 상담에 적용!

인지와 정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수용하여 치료하는 최초의 시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자기치유 프로그램 소개!

어정현 지음/신국판/312쪽/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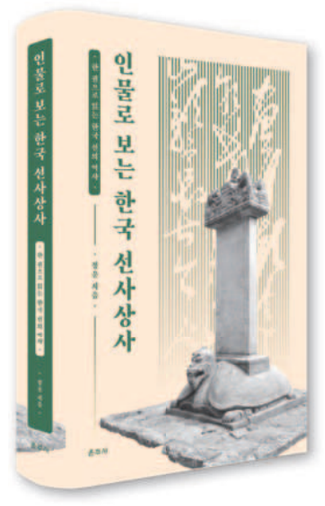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선의 역사!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1,600여년 한국 선의 역사를 톺아보다!
선의 전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사들의 행적과 사상을 통해 한국선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미래를 성찰하다!
옛 선사들의 사상과 발자취를 통해 역사적으로 한국선이 지향하고 추구해온 바가 무엇인지를 포착하였다.

풍부한 사진으로 현장감을 높여주다!
저자가 오랜 시간 직접 찍은 200여 컷에 이르는 자료 사진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 양장/전면컬러/544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